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제54호 【루계 제25197호】 주체105(2016)년 2월 23일 (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군악단창립 일흔돐기념 연주회를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군악단창립 일흔돐기념 연주회를 관람하시였다.

김기남동지, 박영식동지, 리명수동지, 조남진동지, 렴철성동지, 조경철동지와 인민군장병들이 연주회를 함께 보았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백두의 넋과 기상, 무비의 담력과 애국헌신으로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주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연주회를 통하여 출연자들은 세상천지가 열백번 뒤집히고 그 어떤 역풍이 분대도 오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고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 백절불굴의 투지를 잘 보여주었다.

출연자들은 장중한 울림과 경쾌하고 호소적이면서도 전투적기백이 넘치는 선률로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혁명의 제일군기로 휘날리며 당이 가리키는 한방향으로만 나아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사상정신세계와 불패의 기상을 힘있게 구가하였다.

연주회를 보면서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을 실현하는 장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격동의 발걸음소리를 심장에 새겨안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태어나고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따라 강화발전되여온 우리의 군악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군악으로 끝없이 빛내여나가며 조국통일의 그날 온 삼천리강토, 온 세계가 들썩하게 승리의 열병군악을 높이 울려갈 출연자들의 드높은 열의가 맥박치는 연주회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연주회가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열광의 환호로 하여 장내는 세차게 설레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이 손을 저어 답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이 훌륭한 연주회를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창립 일흔돐을 맞이한 조선인민군군악단의 전체 성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나라의 첫 중앙간부양성기지로 창립해주신 평양학원개원식에서 첫 군악소리를 울린 때로부터 장장 70년간 조선인민군군악단은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자랑스러운 행로를 걸어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군악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군군악단을 몸소 조직해주심으로써 주체군악, 혁명군악의 토대가 마련되였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군악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기신 고귀한 애국유산들중의 하나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악단의 연주회를 거듭 지도해주시며 우리의 군악을 군대맛이 나고 화약내가 풍기는 군악, 세계일류급의 군악으로 발전시켜주시였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조선인민군군악단은 나라의 맏아들군악단,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군악단, 조선혁명가들의 립장을 대변하는 나팔수집단으로 장성강화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군악단은 국가의 얼굴이고 우리 군대의 상징이며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아주는 위력한 무기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군악단을 혁명대오의 맨 앞장에 세우고 군악소리를 더 높이 더 힘차게 울리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려는것은 당중앙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군악, 혁명군악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군악단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고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군악단 일군들과 창작가, 연주가들이 혁명군악으로 당과 수령을 받들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군악단의 전체 일군들과 창작가, 연주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천만군민을 최후승리에로 불러일으키는 군악포성을 더욱 힘차게 울려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자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고있다.

주체조선의 막강한 국력이 천지를 진감하고 도처에서 희한한 천지개벽이 펼쳐지고있다. 세계가 경탄하는 우리 조국의 격동적인 현실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당과 혼연일체를 이룬 천만군민의 자강력에 의하여 펼쳐진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자강력은 강국건설의 위력한 보검

강국을 일떠세우는것은 인민대중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조국과 인민대중의 운명은 하나로 련결되여있다. 외세의 강압에 굽어드는 약소국은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해줄수 없고 운명을 지켜줄수 없다. 인민대중은 불패의 강국을 건설하여야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자기의 삶과 행복도 꽃피울수 있으며 후손만대의 번영도 이룩할수 있다. 조국의 강한 국력이자 인민의 억센 힘이다.

인민대중이 갈망하던 강국건설의 길은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더욱 완벽하게 밝혀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갈데 대한 강령적지침을 제시하시였다. 강성국가건설의 불멸의 대강을 천명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위성,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위성, 위대한 조선인민의 위성 《광명성—4》호의 황홀한 비행은으로 자강력이 강성번영의 위력한 보검이라는것을 만천하에 실증해주시였다. 당 제7차대회를 향하여 노도쳐나아가는 홍진군대오에 울려퍼진 자강력제일주의의 포성은 강성국가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를 알리는 력사적인 신호홍성이며 백두산대국의 휘황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우렁찬 승리의 뇌성이다.

자강력은 자기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하는 힘이다. 남의 덕으로가 아니라 자기식의 투쟁방식, 창조방식으로 자기의 힘을 천백배로 강화해나가는것이 자강력이다. 생명체가 물과 공기를 떠나 살수 없듯이 혁명하는 인민은 자강력이 없으면 자기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없다. 자기를 강하게 하려는 불굴의 정신력과 창조력이 있으면 빈터우에서도 강성부흥의 성새를 튼튼히 쌓고 민족의 위용을 높이 떨칠수 있다.

자강력제일주의는 혁명과 건설에서 자강력이 제일이라는 확고한 자각과 믿음이며 자강력을 키우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투철한 각오와 의지이다. 여기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자강력을 제일로 내세우는 자강력중시사상,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갈데 대한 자주적인 강성국가건설로선이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히신 자력갱생에 관한 사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고 우리의 부강조국건설사를 총화하신데 기초하여 자강력제일주의를 명시하신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성국가건설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이다. 자강력제일주의에 관한 사상이 독창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우리 인민은 강성국가건설대업을 앞당겨 실현할 전략적인 보검을 틀어쥐게 되였으며 세계 수십억 인류는 제국주의강권과 략탈을 끝장낼 진정한 힘을 알게 되였다.

자강력은 나라의 국력을 천백배로 다져나가게 하는 창조와 변혁의 무기이다.

력사에는 많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기록되여있다. 한때는 번성하였던 나라들과 부유함을 자랑하던 민족들이 국력이 약하여 쇠퇴몰락의 길을 걷고 전쟁과 략탈의 희생물로 되였다. 토지가 비옥하고 원유가 많다고 하여 부강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자원을 수출하여 남의 무장장비와 완제품들을 수입해쓰며 발전을 말하던 여러 나라들에서 민족의 운명을 망쳐먹은것은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국력을 강화하는데는 자기 힘을 키우는 길외에 다른 길이 없다. 국력을 다지는것은 자신을 위한것이며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 설사 다른 나라의 원조나 방조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언제나 부차적이고 일시적이며 조건부적이였다. 현실은 다른 나라와 민족을 발전시켜준 강대국도 없으며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자기 힘을 키우는 위력한 무기는 자강력이다. 자기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하려는 의지력과 실천력이 있어야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심을 없애고 자체로 민족간부들을 육성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킬수 있으며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는 다방면적이고 현대적인 물질기술적토대도 갖출수 있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과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 내달리는 대담한 공격정신,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비상한 창조본때도 자강력에서 나온다. 자강력만이 살길이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첫 기관단총을 만들 때 우리에게는 도면도 기술도 없었고 기대라고는 남은 피대선반 두대와 조그마한 단조기 한대뿐이였다. 하지만 우리 나라를 지킬 많은 무기를 다른 나라에서 줄수도 없었고 또 우리가 자체로 무장장비를 만들어야 기술도 발전시킬수 있었다. 당시 나라의 경제형편은 말이 아니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체의 병기공업을 창설하실 데 이미 축적한 힘이 최대의 위력을 과시하게 할수 있으며 지난 시기와는 대비도 할수 없는 속도로 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백두산에 시원을 두고 온 나라에 활화산처럼 분출하는 자강력은 날로 승승장구하는 선군조선의 무한대의 힘이고 무적필승의 기상이다. 자강력은 강국건설의 힘있는 무기이며 자강의 길에 혁명의 최후승리가 있다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억척불변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우리의 힘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것이며 우리의 꿈과 리상을 반드시 실현할것이다.

우리 인민은 특출한 자강력을 지닌 인민이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다. 총명하고 슬기로운 우리 민족은 세계 5대문화의 하나인 대동강문화로부터 금속활자를 비롯한 가치있는 문화적재부들을 창조하여 인류문명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고구려시기에 동방의 강국으로 위용떨치던 우리 나라는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사대와 외세의존, 부패무능한 통치로 하여 국력이 쇠진해지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우수한 창조정신과 강의한 생활력도 점차 빛을 잃게 되였다. 5천년 흐르던 민족의 혈통이 일제의 칼에 끊어지고 그 토막토막이 원한의 선혈로 덩굴던 그 세월 이 땅의 남녀로소가 쓰러지면서 남긴것은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는 피의 절규였고 눈을 감으면서도 애타게 찾고 부른것은 부국강병의 길이였다.

우리 인민의 부국강병의 념원도, 우리 인민의 특출한 자강력도 민족재생의 은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대전의 총성이 높이 울린 백두산에서 시작되여 력사의 대하를 이루고 장엄한 현실로 펼쳐지게 되였다. 자력자강, 이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절대불변의 혁명신조였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로 혁명의 앞길을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을 자기 힘을 알고 투철한 자주정신과 자력갱생의 투쟁정신을 지닌 자주적인민으로 키우시였다. 우리 인민을 자강력의 강자들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을 뿌리빼고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한 원동력이였다.

우리 인민의 자강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강령적구호를 제시하시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게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백두의 넋과 기상을 지닌 자력갱생의 대부대로 자라나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식량이 모자라고생하는 인민을 두고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시면서도 나라에 있던 돈의 전부라고도 할수 있는 귀중한 자금을 CNC화에 돌리시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며 인민의 심장속에 자력자강의 억센 기둥을 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하신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사에 찬연히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주, 자강, 자립의 리념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자강력은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다. 혁명가들이 자강력을 잃으면 식물인간이 되고만다는 고귀한 철리를 가르쳐주시고 천만군민에게 자강력제일주의의 보검을 안겨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셔야 인민대중의 자강력도 빛이 난다. 백두산혈세위인들께서 부강조국건설의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곰을 들어 키우시였기에 우리 인민은 특출한 자강력을 지닌 위대한 인민으로 온 세상에 존엄떨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의 자강력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있는 필승의 힘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우리 인민에게 심어주신 불변의 넋이다. 주체의 신념을 지니였기에 우리 인민은 자기 힘을 굳게 믿고 준엄한 혁명의 천만리길을 헤쳐왔으며 자기의 피와 땀으로 승리의 진격로를 열어왔다.

간고한 항일대전의 나날 주체사상은 조선혁명가들의 사상적량식이였고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은 만능의 대백과전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진리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신조를 심장에 새아박았기에 항일혁명투사들은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속에서 맨주먹으로 연질폭탄을 만들어내고 식량을 비롯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며 강도 일제와 혈전을 벌릴수 있었다. 자력자강은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이 백두의 설한풍속에서도 혁명신념을 버리지 않게 한 사상의 기치였고 강력한 주체적힘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게 한 필승의 보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강조국건설의 나날에도 사상사업을 앞세우시고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의 봉화를 지펴주시여 우리 인민이 주체의 한길로 전진하도록 이끄시였다. 우리 인민이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건 자기가 선택한 사회주의길로 신심드높이 나아가고 우리 식, 우리 힘으로 나라의 국력을 백방으로 다진것은 주체사상을 뼈와 살에 새기였기때문이다. 백두의 천고밀림에서 창조된 연질폭탄정신이 군자리정신, 천리마정신, 강계정신으로 줄기차게 이어지고 우리 조국이 백승의 력사를 법칙적인 전통으로 새기며 힘차게 전진하여온것은 우리 인민을 사상의 강자, 정신력의 강자들로 키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자주시대의 영원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 뿌리를 내리였기에 우리 인민의 자강력은 어떤 풍파와 역경속에서도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으며 강국시대, 문명시대를 열어나가는 억척의 보검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인민의 자강력은 준엄한 혁명실천속에서 승리와 기적을 창조하는 파정에 공고화된 불패의 힘이다.

혁명의 만난시련을 헤쳐온 자강력은 억년 가도 강철같이 굳세고 반석같이 공고하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에 시원을 둔 우리 인민의 자강력은 력사의 돌풍속에서 백전백승과 계속혁신의 영웅서사시를 아로새기며 더욱 억세여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자위의 병기고에서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넣을 무기와 총포탄들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대국주의자들이 《통합경제》를 강요하던 때에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올리도록 하시였다. 전기가 오지 않을 때에는 손으로 피대를 돌리면서 원쑤격멸의 병기들을 생산한 군자리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은 우리 인민의 수령절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이 어떤 폭발적인 위력을 낳는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전후의 어려운 시기 내부예비를 동원하고 기술을 혁신하여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생산하고 당 제4차대회에 우리의 힘과 기술, 자재로 훌륭히 만든 전기기관차를 선물로 드린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의 자강력은 혁명이 전진할수록 높이 발휘되는 무한대의 힘이였다.

우리 인민의 자강력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강성국가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길에서 더욱 힘있게 과시되였다. 굶어죽어도 기계설비만은 배고 죽겠다는 강의한 의지로 풀죽을 먹으면서도 기대를 돌리고 엄혹한 식량난속에서도 쌀이 아니라 일감을 달라고 웨친것이 우리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이였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창조된 강계정신에도, 조선의 넋과 기상이 살아높뛰는 주체철과 주체비료, 주체섬유에도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자강력을 높이 떨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고귀한 피와 땀이 응축되여있다. 전쟁의 불바다속에서도, 허리띠를 한치한치 조이면서도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과 경제국방병진로선을 끝까지 관철하여온 그 먼 백전불굴의 자강력을 명줄처럼 넘겨주고 이어받으며 강국의 성벽을 쌓고 문명의 지리들을 일떠세우는 이런 로동계급, 이런 인민은 세상에 없다.

우리 인민의 자강력은 위대한 령도자와 천만군민의 혼연일체에 의하여 최대로 발휘되는 가장 위력한 힘이다.

인민대중의 자강력은 곧 혁명의 주체의 위력이며 위대한 령도자와 천만군민이 사상도 숨결도 보폭도 같이하는 일심단결의 대오에서 최강의 힘으로 분출된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 신념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자강력의 근본원천이다. 어버이수령님들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게 실현하여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강력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무진막강한 힘으로 분출하며 온 누리를 진감하고있다.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관철해내는것이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하는 자강력의 높이이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현대적인 지하전동차를 만들어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결사관철하려는 우리 인민의 충정의 열도가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가를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지하전동차생산자들은 설계도 경험도 없었지만 당에서 정해준 시간은 순간도 드딜수 없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80여일동안 치렬한 돌격전을 벌리였다.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마음을 잇고 당과 심장의 말을 나누며 설계도면들을 하나하나 완성하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재로 지하전동차를 훌륭히 만들어낸 그들의 영웅적투쟁은 병진의 쌍마를 타고 강국시대, 문명시대를 열어나가는 조선의 진짜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뜻과 정으로 굳게 결속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비의 자강력에 의하여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며 과학기술전당과 같은 문명의 창조물들이 곳곳에 솟아나고있다.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우리 조국을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억세게 싸워나가기에 민족자존의 기상이 약동하는 이 땅에서는 새로운 천리마시대, 만리마시대가 펼쳐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력사는 우리 인민을 자강력이 강한 인민으로 키워오신 성스러운 로정이며 자강력에 의거하여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오신 창조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백두산에서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자강력제일주의력사는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안아올것이다. 이것이 주체혁명의 생리이고 법칙이며 전통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강력의 력사는 자주적신념의 최고체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주체혁명의 새시대에 더욱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자강의 길에 최후의 승리가 있다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오려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우리에게는 지금 강성국가건설의 목표와 방향, 방도가 다 있으며 튼튼한 토대와 막강한 잠재력도 있다. 지난 몇해동안의 위대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우리의 자강력이 어떤 메가톤급의 폭발력을 발휘하는가를 가슴에 새기였으며 온 세계가 그것을 지켜보았다. 시간도 우리 편이고 정의도 우리에게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는 불굴의 신념을 가지고 혁명의 전세대들이 발휘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으로 싸워나갈 때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천만군민을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열, 투쟁열로 심장을 불태우는 사상과 신념의 지인으로 준비시키는것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정신은 차곡차곡 쌓아야 한다. 돈이나 물건은 없다가도 생기지만 정신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천만군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자강력을 제일로 중시하고 자강력을 키우는데 첫째가는 힘을 넣으며 강성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저히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자주적신념과 혁명적자존심을 가지고 사대주의와 외세의존, 수입병을 철저히 배격해나갈데 대한 자강력제일주의의 기본요구를 뼈속깊이 새아박고 구현해나갈 때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며 련전련승을 이룩할수 있다.

자강력의 원천은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에 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이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에게 수입한 고가약을 주지 않는다고 하기때문에 병원일군들이 우리 나라에서 만든 주사약을 다른 나라것과 확갈이 포장한다음 그에게 보이고 주사를 놓았더니 그는 3일만에 병이 다 나았다고 하면서 좋아하더라고 하였다고,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의 것이라면 아무것이나 다 좋다고 하는 사대주의로부터 나온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긍지와 자부심에서 자기의것을 남의것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고 자기의 힘을 키우려는 강한 자존심과 투지도 나온다.

자기의것을 살리고 풀없이 빛내여나가려는 각오와 의지이자 자강력의 높이이다. 남의 집에 있는 금덩어리보다 자기 집에 있는 쇠덩어리가 낫다. 겉물로 보이던것도 잘 살리고 빛내이면 보물로 된다. 제힘으로 사는 사람은 흥하고 남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망하기마련이다. 천만군민이 자기의것을 끝없이 빛내이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며 완강하게 투쟁해나갈 때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반드시 실현할수 있다.

수입병은 자강력을 해치는 악성종양과 같다. 수입병은 다른 나라 제품에 대한 환상과 남의것으로 멋이나 내고 무슨 일이나 품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하려는 낡은 사상관점에서 나온다. 환상은 과학이 아니다. 다른 나라 제품에 대한 환상과 수입병이 만연되면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이 생겨나 자강력이 없어지고 다른 나라의 설비와 자재가 없으면 현대화도 생산정상화도 할수 없다는 패배주의에 빠지게 된다. 남의것만 사쓰며 자기의것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자기의것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것은 우리의 애국심과 자존심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남의것에 대한 환상과 수입병을 틀어내는 사상전의 불도가니속에서 우리의 자강력은 불순물이 제거된 강철처럼 더욱 굳세여질것이다.

자강력제일주의를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위한 근본요구이다.

말로만 나타나고 실천으로 발휘되지 못하는 자강력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가 자강력을 키우는것도, 그 위력을 떨치자는것도 나라의 국력을 강화하고 이 땅에 태를 묻은 모든 사람들에게 최상의 문명을 안겨주자는데 있다. 천만군민이 웅대한 포부와 리상을 안고 겹쌓이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자강으로 뚫고나갈 때 주체적힘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과학기술은 자강력이 천백배로 과시되게 하는 힘있는 원동력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1월 1일 과학기술전당의 준공테프를 끊으시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는 새해의 첫문을 과학으로 열었다는 참으로 뜻깊고 힘있는 말씀을 하시였다.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강성국가건설을 앞당기려는것이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이다. 전체 인민이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갈 때 원료, 연료, 동력문제도 우리의 자원으로 해결하고 현대화의 높은 봉우리도 점령할수 있으며 제품의 질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울수 있다. 우리의 유연생산세포와 통합생산체계도, 인공지구위성도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주체과학의 산물이다. 모든 부문에서 자립적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며 최첨단과학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도입해나갈 때 우리의 자강력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강국의 재부, 행복의 열매들을 더 많이 안아올것이다.

국산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것은 자강력제일주의의 요구이다. 설비, 원료, 자재의 국산화에 국력강화의 길이 있고 생산장성의 비결이 있다.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국내에서 생산보장하여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다같이 기술도 발전시키고 생산도 장성시킬수 있다. 국산화는 현대화의 중핵이고 기본지표이다. 현대화에 필요한 설비들을 국산화에로 확고히 방향전환하고 원료, 자재를 보장하는 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며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릴 때 온 나라에 련전련승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칠수 있다.

자강력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상품, 명제품들을 더 많이 만드는데서 힘있게 과시된다.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는 모든것이 세계최고의 수준이여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요구이다. 한가지 제품을 만들어도 조국의 존엄과 기상을 떨치겠다는 관점을 가지고 제품의 질제고에 힘을 넣는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창조정신, 창조기상, 창조본때이다. 누구나 세계적인 발전추세를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겠는가를 깊이 연구하며 아글타글 노력할 때 도처에서 명제품, 명상품생산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오를수 있다.

우리 천만군민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는 력사의 주인, 시대의 창조자이다.

강성국가건설대업은 자강력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의 높은 단계이며 전체 군대와 인민이 높은 정신력과 담대한 실천력을 지닐것을 요구한다. 새로운 천리마시대, 만리마시대인 오늘날 순간의 안일과 해이, 침체와 답보는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누구나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할수 있게 투쟁하고 전진해나갈 때 우리의 전진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될것이다.

백두산혁명강군은 국가의 자강력을 키우는데서 핵심부대, 본보기이다.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국가의 자강력을 키우며 인민군대에 의거하여 승리에서 더 큰 승리의 령마루를 정복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령도방식의 특성, 독창성, 변함없는 원리이다. 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가 백두의 연질폭탄정신으로 수령의 유훈관철, 당정책옹위전의 앞장에서 질풍쳐 내달리기에 온 나라가 자강력제일주의로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인 우리 청년들은 자강력의 투철한 체현자, 용감한 구현자들이다. 청년들이 백두산천지의 맑은 골처럼 순결하고 백두의 이깔처럼 강직한 정신으로 자강력의 폭풍을 일으켜나갈 때 홍진군대오에 백승의 기상이 차넘칠수 있다. 온 나라 청년들이 서두수의 차디찬 물속에 뛰여들어 온몸이 《얼음기둥》이 되여 매루를 떠받든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그 기백과 용맹으로 싸워나갈 때 백두산청년강국의 위력은 백배해질것이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자강력은 무궁무진하다.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맏아들인 우리 로동계급이 자력자강의 무쇠마치를 힘있게 틀어쥐어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수입병을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들을 뿌리빼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수 있다. 전체 인민이 강성국가건설대업과 우리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겠다는 결심과 투지를 가지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갈 때 대고조전역들에서 눈부신 기적들이 창조되게 된다.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할 기수, 선구자는 일군들이다. 일군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부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갈 때 세계를 들었다놓는 대사변, 대경사들이 련이어 이룩될수 있다.

백두산대국은 영원히 자강력으로 빛을 뿌리는 불패의 강국이다.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위대한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안겨주기 위하여 총돌격, 총매진해나아가자는것이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백두의 칼바람에 몸을 달고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억세게 싸워나갈 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대승전고가 우렁차게 울려퍼질것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가 열리게 될것이다.

정 선 철

|공동구호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자강력이 제일이라는 신념을 깊이 심어주라!

자기 힘을 믿으면 만리도 지척

함경북도당위원회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력사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그 위력이 뚜렷이 검증된 자력갱생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에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함경북도당위원회의 사업을 통해서도 자기 힘을 믿고 일떠서면 만리도 지척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확증하게 된다.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함경북도당위원회에서 광범한 대중의 가슴마다에 자력자강의 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박력있게 전개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목표의 기준도, 실천의 기준도 자강력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 도당위원회가 세운 작전은 정신이 번쩍 든다.

우선 목표부터 높이 세웠다. 초등학원과 중등학원, 양로원, 양생원, 메기공장, 강냉이가공공장전설, 버섯공장현대화공사 등 건설부문에서만도 방대한 과업들을 내세웠다. 김철과 무산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 해야 할 일감도 대단하다. 이전같으면 엄두조차 낼수 없는 목표들이다.

지난 시기보다 조건이 좋아진것은 아니다. 전기, 석탄, 세멘트, 강재를 비롯한 동력과 연료, 자재들은 여전히 부족하다.

하기에 일부 일군들속에서 높이 세운 목표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온것은 우연치 않다.

그러면 도당위원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목표를 정하였는가.

그것이 바로 대중의 자강력이다.

도육아원, 애육원건설을 불이 번쩍 나게 해제낀것을 비롯하여 최근년간 도에서 거둔 성과들은 자재가 많고 조건이 좋아서 이룩된것이 아니다. 충정과 애국으로 불타는 심장들이 안아올린 자력갱생의 자랑스러운 열매들이다. 그 나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닭알에도 사상을 새우면 바위도 깨뜨릴수 있다는 진리를 신념으로 간직하였다.

대중의 자강력에 의거하면 그 어떤 조건에서도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이 도당위원회일군들의 확고한 의지이다.

자강력의 높이이자 실적의 높이, 이것이 도당위원회가 내세운 실천의 기준이다.

지난해 김철에서 주요생산공정들의 현대화를 실현한 비결도 자강력에 있고 무산에서 3호대형용추형과해장전설을 짧은 기간에 완공할수 있은것도 자강력을 무기로 틀어쥐였기때문이다. 현실은 자강력의 강자는 만리마를 타고 자강력의 약자는 하늘소를 타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도당위원회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당정책관철의 제일보검으로 틀어쥐고 아래당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안을 치밀하게 세웠다. 도당일군들부터 자기 힘을 믿으면 만리도 지척이라는 진리를 깊이 새기도록 하는 문제, 아래당조직들에서 사상전의 된바람을 일으키도록 장악지도를 심화시킬데 대한 문제, 도당일군들이 현실에 발을 붙이고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할데 대한 문제 등 여러가지 대책들이 반영되였다.

특히 책임지도원, 담당지도원들의 지도사업요강에 대중의 자강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중요한 항목으로 밝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담당단위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료해대책하는것으로 만족해할것이 아니라 그 단위 사업을 전적으로 함께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일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실례로 담당단위에서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방도를 한가지이상씩 찾고 그 실현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게 한것을 들수 있다.

자강력을 기준으로 세운 높은 목표와 치밀한 대책은 도안의 모든 당조직들을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직선주로에 세워주었다.

사상의 강자는 곧 자강력의 강자

사상공세를 강화하여 자강력 강자들의 대부대를 키우자!

이런 결심밑에 도당위원회의 사상공세작전이 펼쳐졌다.

책임일군들부터 사상전의 키수가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그달음으로 김철에 나간 도당책임일군은 온 나라가 김철을 바라보고있다, 금속공업의 생명선을 지켜선 전초병답게 분발하여 자립의 강철기둥을 더욱 굳건히 세우자고 호소하였다.

선광장능력확장공사를 다그쳐 무산의 본때를 다시금 보여주자는 도당책임일군의 목소리가 철산봉에 울릴 때 고무산세멘트공장에 나간 도당부부장은 기술자들과 함께 생산정상화의 방도를 탐구하며 낮과 밤을 이어갔다.

청진제강소를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과 화대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 나간 도당일군들도 로동자들과 함께 선반도 돌리고 농민들과 어깨나란히 거름도 져나르면서 자강력이야말로 기적창조의 열쇠라는 진리를 체득시키고있다.

회의장의 연단에서가 아니라 불꽃튀는 전투장들에서 도당일군들이 힘차게 울려가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는 대중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주판부서인 선전선동부가 통이 크게 일관을 벌리고있다.

우선 강연강사, 학습강사, 선동원들과 도예술단, 도예술선전대 등 선전선동력량을 총발동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또한 방송선전차로부터 각종 음향기재, 직판물,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소도구에 이르기까지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기 위한 대책들도 면밀하게 세웠다.

이에 따라 대중의 심장에 투쟁의 불을 지펴올리기 위한 사상전을 공세적으로 전개하였다.

초급선전일군들이 때처나 일터마다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더욱 세차게 나래치게 하기 위한 사상전의 포성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청진시안의 구역출판물보급소 보급원들과 도혁명사적관 강사들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나가 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렸다. 도작가동맹위원회 작가들은 벽시류음을 비롯한 작품들을 창작하여 금속공업부문 로동계급의 심장에 불을 달았고 도예술단과 도미술창작사의 배우, 미술가들도 수산부문 어로공들속에 들어가 격동적인 선동활동으로 전투장을 끓게 했다.

무시에서는 집중강연선전활동에도 큰 힘을 넣었다. 능력있는 직외강연강사들로 도집중강연선전대를 꾸고 그 준비에 많은 품을 들였다. 김철에 달려나가 용해공들의 일손을 도우면서 강연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린 도집중강연선전대원들의 발걸음은 무산과 북부지구의 탄전을 비롯한 중요전투장들로 이어지고있다. 시, 군들의 집중강연선전대들도 이르는 곳마다에서 힘있는 강연선전활동으로 대중의 자강력을 백배해주고있다.

지난해 도에서 이룩한 전설성과를 보여주는 록화편집물을 만들어 대중의 자강력발동을 위한 교양에 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되고있다.

강력한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이 총동원되여 대고조전역을 타고앉아 들이대는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속에 자강력강자들의 대부대가 자라고있다.

지금 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힘을 믿으면 만리도 지척이라는 확신에 넘쳐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김 승 표

제 일 보 검

◇ 오늘의 시대어—자강력!

주체혁명의 새시대가 펼쳐지는 오늘 우리 당이 자강력제일주의로선을 제시한것은 백두에서 창조되여 그 진리성과 거대한 생활력이 힘있게 확증된 자력갱생의 전통을 이어 이 땅우에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무진막강한 백두산대국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기 위해서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강력을 선군조선의 시대어로 심장깊이 쪼아박은것은 그것이 그 어떤 말이 아니라 생명이고 생활이기때문이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평양장냉이가공공장 아니 온 나라가 전례없는 자강력제일주의열풍으로 끓어번지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이 안겨주는 의미는 참으로 비상하다.

땅우에도 지하에도 하늘에도 우리의것이 차넘치게 하려는 강렬한 자주, 자강의 의지는 바로 내 조국의 민심이며 현실이다.

당의 의도와 민심이 하나가 된 시대어—자강력, 바로 이것이 최후승리의 주제가가 아니겠는가.

◇ 자강력제일주의는 우리 당의 강성국가건설로선이며 최후승리의 제일보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입니다.》

사상과 로선의 진리성은 력사와 현실이 증명한다. 자기 힘이 약해 망국의 비극사를 피로 새긴 인민, 자력자강의 힘으로 조국을 찾고 지키고 빛내인 인민만이 힘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철학을 가지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자력갱생은 자주, 자강의 기초우에서 민족자력에 의한 나라의 독립을 갈망하는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구호였다고 하시면서 유격구의 명기창에서 울리던 자력갱생의 마치소리는 로동당시대의 맥박으로 되고 이 시대를 줄탁음치게 하는 위력한 원동력으로 되였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연길폭탄에서 수소탄까지, 호미를 만들어 땅에 행복의 씨를 뿌리던 어제와 위성을 만들어 우주에 만복의 씨를 뿌리는 오늘의 이 극적인 사변은 우리의 자강력의 진리성에 대한 가장 힘있는 과시로 된다.

자강력은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형성되는 자연사적과정의 산물이 아니다.

위대한 사상이 자강력을 결정하며 위대한 수령이 자강력의 강자를 키운다!

우리의 자강력은 위대한 수령의 품에 뿌리를 두고 주체사상의 빛발속에 성장한 거목이다.

당의 령도밑에 자강력을 백배로 다져야 사대주의를 뿌리뽑고 주체적혁명력량을 비상히 강화할수 있으며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헤쳐 우리 당의 원대한 강성국가건설구상을 앞당겨 실현할수 있다.

그렇다. 자강력이야말로 백전백승의 제일보검이다.

◇ 자강력제일주의를 당사업의 기치로 더욱 높이 추켜들고나가야 한다.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여 그 거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자기의 힘이 제일이고 자기의것이 제일이라는 신념을 안겨주기 위한 사상전의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며 사대주의와 수입병을 뿌리뽑기 위한 교양사업을 원리적으로, 현실과 밀접히 결부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효성있게 벌려야 한다.

당조직들에서는 자강력의 최강자인 인민군대의 정신과 본때, 기질을 따라배워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제시된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당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공세적으로 들이대야 한다.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첨단을 돌파하며 경제강국건설의 돌격로를 열어제끼고 국산화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자립경제의 막강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양시킴으로써 우리 인민의 꿈과 리상을 우리 힘, 우리 기술, 우리 자원으로 실현하는 자력자강의 숨결이 온 나라에 공기처럼 차흐르게 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제일보검으로 억세게 틀어쥐고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를 전례없는 승리의 해로 빛내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총매진하여야 할것이다.

과학기술의 노를 저어 바라로!

운전수산사업소 초급당위원회 사업을 놓고

자강력의 크기이자 실력의 높이이다.

이 문제의 중요성을 운전수산사업소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을 통해 보기로 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기술로 발전하고 과학기술로 살아가는 시대이며 실력전의 시대입니다.》

몇해전 어느날 짜내기그물생산공정을 꾸리는 사업이 중단되는가 마는가 하는 정황이 조성되였을 때였다.

사실 짜내기그물은 전문어구공장들에서 보장받게 되여있었다. 그런데 여러가지 조건으로 그것이 원만히 보장되지 못하였다. 하여 사업소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짜내기그물생산공정을 꾸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헐치 않았다. 그것을 만드는것을 본 사람조차 없다보니 첫걸음부터 애로가 많았다. 그러자 우리 힘으로는 안되겠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기 시작했다.

초급당비서 승상호동무는 이 사업을 다시금 구체적으로 료해하는 과정에 중요한 문제점을 찾게 되였다. 이 사업을 과학기술력량이 아니라 자재보장을 맡은 일군들이 주동이 되여 밀고나가고있었던것이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초급당비서는 이 문제를 놓고 지배인 최광천동무와 방도를 토의해보았다. 결과는 명백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여기에 모든것을 지향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들이 세워졌다.

우선 기술과를 핵심으로 력량편성을 바꾸었다.

그리고 초급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이 사업을 적극 떠밀어주었다.

그물실사출공정을 꾸릴 때였다. 실은 잘 나오는데 필요한 굵기가 보장되지 않아 애를 먹었다. 이때 초급당일군들은 방직공업부문의 기술서적들도 기술자, 기능공들에게 가져다주고 그들의 시야를 넓혀주기 위하여 어구공장들에 대한 참관도 조직하였다. 그 과정에 그물실사출공정에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도입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를 계기로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전, 실력전의 된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켰다. 모든 기술자들에게 기술혁신과제를 명백히 주고 해마다 2차씩 그에 대한 총화와 평가를 의의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정밀한 로동자들도 과학기술전, 실력전에 대담하게 뛰여들어 한몫 단단히 하도록 하기 위한 분위기도 조성하였다. 후라이스반에 간단한 지구만 도입하면 월치차가공도 할수 있다는 착상을 한 로동자며 연료콤프레싸협대제작 및 분사구재생공정도입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를 해결한 기능공을 비롯하여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서 앞장선 로동자들을 영예게시판을 통하여 널리 소개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사업소에 몰아치는 과학기술중시열풍속에 실력의 강자들이 수많이 자라나 수입에 의존하거나 전문어구공장들에서 가져다쓰던 많은 부속품, 자재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하게 되였으며 그것은 바다를 정복하는 큰 밑천으로 되였다.

과학기술의 노를 저어야 바다를 정복할수 있다!

이것이 이곳 초급당위원회 사업경험이 주는 귀중한 대답이다.

본사기자 김 순 영

당원들이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진군의 앞장에 서도록 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평양한광기계공장에서— 본사기자 신 충 혁 찍음

명 진 단, 명 처 방

남덕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지난해 남덕탄광에서 벨트콘베아공사와 관련한 설비제작문제를 놓고 일군들의 협의회가 열렸을 때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기의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내세울줄 모르며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참다운 애국자로 될수 없다.》

일부 일군들속에서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필요한 자재를 어디서 해결받겠는가, 탄광의 기술력량을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다, 설사 자체의 힘으로 만든다고 해도 수입설비만 하겠는가. …

초급당비서 한대성동무는 이런 뒤떨어진 관점의 원인이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덮어놓고 남의것을 좋다고 하는 수입병에 있다고 진단을 내렸다.

그러면 초급당위원회가 수입병을 없애기 위한 처방을 어떻게 내렸는가를 보자.

초급당위원회는 그 처방의 하나가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기의것을 빛내여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분발하여 일떠서도록 하는데 두었다.

자체로 만든 배전함에 대한 시운전을 할 때였다. 구동장치가 원활하게 동작하지 않게 되자 손맥을 놓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그들에게 초급당일군은 성공이 눈앞에 왔는데 한걸음을 앞에 두고 주저앉겠는가, 문제는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려는 의지가 부족한데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불러일으켰다.

현장에서 기술자, 기능공들과 탐구의 낮과 밤도 보내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전문공장에 찾아가기도 하는 당일군들과 행정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에서 큰 힘을 얻은 설비과 과장 한영철동무를 비롯한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은 신심에 넘쳐 전투를 벌렸다. 성공의 시각은 끝내 오고야말았다.

하여 석탄운반능력을 높여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동시에 일부 일군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던 수입병이 송두리채 없어졌다.

명진단, 명처방의 실효는 이렇게 컸다.

본사기자 손 영 희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기풍과 일본새

평양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고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며 인민을 위한 길에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 혁명의 유능한 지휘성원이 되여야 합니다.》

평양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은 전당이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해나아가자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 수도시민들의 생활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들을 거두고있다.

최근 수도시민들의 물문제와 승강기운영, 수도려객문제를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업에서 이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한 거창한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이 되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여야 한다는 귀중한 교시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라!

이 깊은 뜻에는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우리 사회의 주인인 인민들에게 무한히 성실하며 자기를 짱그리 다 바치라는 크나큰 믿음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놓고 일군들의 사업을 분석해보는 과정에 시인민위원회 당위원회 일군들이 심각히 반성해보게 되는 문제들이 있었다.

(…지금 우리 일군들이 과연 인민의 심부름군들로 일하고있는가.)

생각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자책도 커졌다.

사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속에는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여 인민들의 비난을 받는 일군들이 없지 않았다.

그러면 왜 이런 일군들이 생기는가. 자기들이 인민의 심부름군이라는것을 몰라서인가.

결코 그렇게만 볼 문제도 아니였다.

책임일군들은 일부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옳지 못한 편향이 그들이 인민정권기관에서 일하는 과정에 저도모르게 인민우에 자기를 올려놓은데 있다고 보았다.

매우 위험하고 시급히 바로잡지 않으면 안될 문제였다.

당위원회에서는 이런 현상에 경종을 울리고 모든 일군들이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는 한편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상고충을 풀어주기 위한 실천활동과정에 그들을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였다.

여기서 인민위원회 책임일군들이 중시한 사업이 인민들의 물문제해결이였다. 사실 이 문제가 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조직될때 그 사업을 해당 부서의 일로만 여기면서 자기들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일군들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해나아가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시당위원회의 모든 일군들이 떨쳐나 밤낮없이 헌신분투하는 모습은 정권기관 일군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시인민위원회 모든 일군들이 시당위원회일군들과 어깨겯고 물문제해결에 달라붙었다.

당위원회에서는 주마다 물문제해결을 위한 일군들의 사업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사실들을 통보해주면서 모든 일군들이 진정한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 맡은 일에서 실적을 내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들이댔다.

이 과정에 일군들의 열의가 비상히 높아졌다. 책임일군들로부터 부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군들이 물문제해결을 위해 밤낮없이 뛰고 또 뛰였다. 제기되는 자재를 해결하기 위해 머나먼 출장길에서 며칠씩 꼭으면서 남모르는 수고를 바친 일군들도 있었고 로동자들과 함께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상수도판을 새로 설치하며 새날을 맞은 일군들과 양수설비수리에 성의있는 지원사업을 진행한 일군들도 있었다.

이 과정에는 이런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었다.

양력설에도 주민들의 물보장을 위해 안타까이 뛰여다니던 한 일군이 쌈시간을 내여 중병을 앓고있는 안해가 걱정스러워 집에 잠시 들린적이 있었다. 그때 안해의 병상태는 매우 위급하였다. 하지만 그 일군은 안해에게 광배를 구하고 양력설명절을 쇠는 주민들의 물보장을 위해 양수장에 나갔다. 그가 안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것은 통일거리의 어느 한 양수장에서 양수능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때였다. 그는 함께 일하던 양수공들에게 아무런 내색도 없이 집에 돌아와 조용히 장례를 치르었다. 장례가 끝난 후 그는 다시 양수장을 찾아가 운전공들에게 출장을 갔다오다나니 며칠동안 들려보지 못해 미안하다며 성의껏 준비해온 많은 후방물자를 그들에게 안겨주고 새로 구해온 양수기부속품도 내놓았다.

씩 후에야 그 일군의 집안일을 알게 된 양수공들은 가슴이 미여져왔다. 안해가 중병에 걸린 사실도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앓고있는 양수공들의 집을 빠짐없이 찾아다니며 뜨거운 정성을 기울인 그 일군의 모습이 양수공들에게 준 충격은 참으로 컸다.

어찌 그 일군만이겠는가.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이 되여 퇴근시간이면 맡은 단위들에 나가 성실한 땀과 노력을 바치는 일군들이 수없이 많다. 지금 시안의 곳곳마다에서는 물문제해결과 함께 주민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수도려객문제와 승강기문제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 전구들마다에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으로서의 숭고한 자각을 안고 헌신의 낮과 밤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의 발자취가 뚜렷이 새겨지고있다.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가 되자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것은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이며 항시적으로 틀어쥐고 드팀없이 밀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직접적담당자는 당앞에 인민생활보장을 책임진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이다.

사실 인민정권기관에서 할 사업은 실로 방대하다.

사람들이 출생해서 한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고 책임적으로 돌봐주는것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앞에 맡겨진 무겁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다. 교육, 보건, 체육, 문화사업과 도시경영, 건설과 주택문제를 비롯하여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 모든것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준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방대하고 아름찬 과업들의 성과여부는 바로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높은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

평양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의 최근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중요한 점은 모든 일군들이 자기들이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인민생활의 호주로서 지난 시기에는 볼수 없었던 놀라운 실적들을 내고있는것이다.

주민연료보장을 맡은 일군들의 사업만 놓고보자.

땔감문제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떼여놓을수 없는 매우 중요하고 책임적인 사업이며 품 또한 많이 드는 일이다.

주민들의 땔감을 확보하고 수송하며 공급하는 일군들의 사업과정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맡은 임무수행에서 매우 책임적이며 실력가들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자체의 힘으로 전인기와 화차들을 해결하고 관리운영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방대한 땔감을 지체없이 수송해온다는것은 절사의 각오와 막아서는 난관을 능숙하게 뚫고나가는 조직적수완과 능력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지금 연료보장을 맡은 일군들의 일이 치차처럼 맞물려 책임적으로 진행되여나가고있다.

이 모든 성과는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라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 주민들의 땔감문제해결에 성실한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일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주민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탄문제만 보아도 그렇다.

시민들의 석탄보장을 위해 일군들은 늘 탄광들에 나가 탄부들속에서 힘있는 정치사업을 벌리면서 석탄생산을 함께 책임졌다는 립장에서 탄광에 필요한 자재와 동발들도 원만히 보장해주며 한의 석탄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온넋을 다 바쳐가고있다.

이런 일본새는 시인민위원회의 모든 부서들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다.

이 나날에 시인민위원회의 일군들속에는 《우리》라는 정다운 대명사로 불리우는 일군들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우리 국장》, 《우리 처장》, 《우리 지도원》…

이 부름은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에 참된 생을 빛내여가는 인민의 충복들에게 우리 당과 인민이 주는 값높은 표창인것이다.

최근에 시인민위원회일군들의 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특징은 한마디로 헌신이다.

인민을 위한 일에는 네일내일이 따로 없고 오직 절대적인 집행만 있다는것이 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의 일본새이다.

이 혁신적인 일본새로 시당위원회에서 중요하게 토의되여 항시적으로 내미는 물문제와 승강기, 수도려객문제들은 물론 시인민위원회의 일군들이 맡은 인민생활향상과 관련한 모든 사업들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수도에서는 지금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힘찬 진군속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사업들이 벌어지고있다. 이 모든 사업의 앞장에는 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이 서있다.

이들의 불타는 마음과 헌신적인 노력속에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들의 조건개선을 위한 사업들과 산림복구, 원림록화가 항시적으로 중단없이 진행되고 도시꾸리기와 전물들의 보수, 강하천정리, 도로상태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 상업 및 급양봉사활동 등 참으로 방대하고 아름찬 사업들이 하나도 놓침없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인민들의 식생활을 높이기 위한 축산과 양어, 비닐과 온실남새생산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들도 거창한 규모에서 진행되고있다.

물론 아직 수도시민들의 생활에서는 적지 않은 애로와 난관이 있으며 해결해야 할 아름찬 과업들도 수없이 많다.

시인민위원회일군들이 말하듯이 해놓은 일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하지만 해놓은 일보다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는 사상적각오를 안고 걸음걸음을 크게 내짚는 기풍이 더 소중한것이다.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

인민의 심부름군이며 그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라는 숭고한 자각을 지니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해나가는 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의 창조적이며 헌신적인 일본새는 수도의 그 어디에서나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게 할것이라는것을.

이 귀중한 생활의 진리를 오늘 평양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은 자기들의 실천으로 증명해보이고있다.

특파기자 최 수 복

우주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로 빛내여간다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에서

만리창공으로 솟구치는 위성속도로 더 높이, 더 빨리

자강도려단에서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과시하며 솟구쳐오른 주체위성 《광명성-4》호의 속도에 발맞추어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 그들속에는 자강도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도 있다.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만리마를 탄 기세로 총돌격전을 벌리는 려단청년돌격대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21일현재 맡은 조압수조콩크리트타입공사는 84%계선을 넘어섰다.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조압수조의 모습은 비록 보온덮개에 가리워져있지만 거기에 바친 돌격대원들의 영웅적위훈은 밤하늘의 위성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총진군대오의 전열에 내세워 강성국가의 문패를 남먼저 달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3호발전소건설장의 중요대상공사중의 하나인 조압수조콩크리트타입을 맡은 자강도려단앞에는 많은 애로와 난관이 막아나섰다. 콩크리트구조물공사를 처음 해보는 려단에서 그것도 겨울철에 높은 공사속도를 보장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더우기 공사장의 지형이 불리하여 물동을 운반하는데 큰 품이 들었다. 지난해부터 길을 닦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물동을 운반하였지만 비상히 높이 세운 공사목표를 달성하자면 혁명적인 대책이 필요하였다.

려단의 지휘관들은 대담하게 산허리를 감돌아 천여m의 넓은 도로를 새로 뽑기로 하였다. 려단에 맡겨진 공사계획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또 하나의 공사를 맡아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적은 인원으로 수백㎥의 성토작업과 암반굴착을 최단시일내에 진행하여야만 하였다. 기계수단의 도움도 받을수 없었다. 하지만 청년돌격대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났다.

완공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면 산중턱이 아니라 천길지심깊이에라도 대통로를 뚫고 굳은 각오안고 려단은 결사전에 떨쳐나섰다.

풍풍 얼어붙은 땅은 암반보다 더한 장애물이였다. 돌격대원들은 함마와 정대로 흙을 뜯어내고 암반을 까며 한치한치 도로를 닦아나갔다. 돌격대원들에게 실리는 육체적부담은 보통때의 두배, 세배를 넘어섰다. 그러나 누구도 주저앉거나 뒤걸음치지 않았다.

이들은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을 충폭발시켜 맡은 공사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면서도 단 2일만에 천여m의 도로를 새로 뽑는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려단의 지휘관들은 작업공간이 비좁은데다가 겨울철조건에서 타입공사를 진행하는데 맞게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내기 위하여 사색을 거듭하였다. 작업공간을 늘이기 위하여 발대목들의 위치와 발판고정에 세심한 주의를 돌렸으며 로력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해나갔다.

타입장의 높이가 20여m인 조건에서 온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3개의 난로는 고정시키고 10여개에 달하는 나머지 난로들은 이동시킬수 있도록 개조하였다. 그리고 물재의 온도를 보장하기 위한 덧집을 지어 공사의 질적수준을 보장해나갔다.

려단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던 어느날이였다. 갑자기 타입장으로 물을 퍼올리던 양수기가 멎어섰다. 혹심한 추위에 물관이 얼어붙었던것이다. 림시대책을 세웠으나 랭하 30℃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에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멎어섰다. 물관을 교체하고 양수기를 정상으로 동작시키자면 몇시간은 기다려야 했다.

완공의 날까지 한초가 새로운데 어떻게 물이 없다고 공사를 중단할수 있겠는가. 돌격대원들은 분연히 일어났다. 바께쯔와 소뿡이, 물초롱과 물지게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물을 나르기 시작했다. 100여m의 경사급한 산길을 멋먼 오르내리면 신발과 바지가랭이는 물에 젖고 팟팟하게 얼어붙었다.

그러나 청년돌격대원들의 몸은 얼어붙지 않았다. 완공의 날을 향하여 더 높이, 더 빨리 번개처럼 달리는 백두청춘들앞에서는 백무교원의 강추위도 머리를 숙이는것이다. 당을 위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가는 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으로 려단은 매일 맡겨진 공사과제를 빛나게 넘쳐 수행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두의 정갈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심신을 단련하고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배짱과 신념을 키운 청년전위들은 우리 당의 가장 믿음직한 계승자들이며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들입니다.》

박달나무조차 얼어터지는 백무교원의 강추위, 그 모진 추위를 밀어내며 수많은 우등불들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여기는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언제건설전투장이다.

현지보도

위훈의 별무리, 건설장의 우등불

성, 중앙기관대대 전투장에서

땔짠 눈보라가 사납게 불아치고 살을 에일듯 한 강추위에 새벽공기마저 얼어붙는듯 한 여기서는 지금 성, 중앙기관대대 청년돌격대원들의 물재운반전투가 한창이다.

불, 불, 온 건설장이 불천지이다. 공사장의 곳곳을 대낮같이 밝히는 전등불빛, 건설장의 힘장수라고 뽐내며 쉴새 없이 긴 팔을 휘두르는 굴착기의 조명등빛, 산더미같은 물재를 담아싣고 분주히 오가는 화물자동차들의 전조등빛…

밤하늘의 별무리가 땅우에 그대로 내려앉은것만 같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돌격대원들의 걸동무는 우등불이다. 보기만 해도 온몸이 훈훈해지는 우등불이 여기저기서 활활 타오르고있다.

청년돌격대원들의 물재운반전투는 더더욱 백열전을 이루고있다. 화물자동차들이 연방 물재를 부리우지만 순식간에 바닥이 나군 한다.

펄펄 휘날리는 붉은기들과 가물막이뚝우에 세워놓은 전투속보판들, 어둠을 가르며 힘있게 울려퍼지는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나팔소리, 북소리, 노래소리, 멀리 방송에서 들려오는 음악소리…

이 모든것들이 우등불과 어울려 공사장은 말그대로 불도가니로 된듯싶다.

지금 또 한대의 화물자동차가 물재를 부리우고있다. 20t은 실히 될 량이다. 전번 화물자동차가 실어온 물재를 단숨에 나른 돌격대원들이 충천한 기세로 삼날을 박는다. 리명성, 리명남동무들이 삼질을 얼마나 드세게 해대는지 삼날에서 불꽃이 튀고있다. 수백, 수천번도 더 되는 삼질이건만 지친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김원철동무를 비롯하여 운반을 맡은 돌격대원들의 사기도 하늘을 찌를듯 높다. 40~50㎏은 실히 될 물재마대를 멘 대원들은 앞을 다투어 타입장으로 달리고있다.

신입대원들까지도 《길을 내라! 빨리 가자!》고 경쟁열을 올린다. 경사급한 비탈길이지만 속도는 조금도 더디여지지 않는다. 물재를 부리우고 돌아서는 대원들의 등에서는 더운 김이 문문 피여오르고있다.

맞들이를 든 처녀돌격대원들도 절싸게 움직인다. 덧집안의 타입장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비탈길이지만 정금주, 김설향동무들은 날렵하게 몸을 움직이며 앞장에서 달리고있다. 높이 쌓였던 물재무지가 눈에 띄게 쑥쑥 내려간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대대장 정충혁동무가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 속도로 나가면 오늘계획도 넘쳐 수행할것 같습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려단들에서도 새 기록, 새 기준창조로 부글부글 끓고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사이에 벌써 돌격대원들은 다른 무지로 옮겨간다. 종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투를 벌린다.

어느덧 동이 터온다. 그와 함께 대대의 물재운반전투도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언제가 또 한번 키를 돋군것이다. 밝아오는 려명에 조명등들이 빛을 잃고 우등불도 사그라들기 시작한다.

그러나 백두청춘들의 심장은 더욱더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다. 청년강국을 빛내이는 위훈의 별무리가 될 불타는 명세가 굽이치는 그들의 심장엔 언제나 건설장의 우등불이 타오르고있는것이다.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물재운반전투를 힘있게 다그친다.

단상

백두전역의 위성들

주체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소식에 접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은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어딜 가나 우리의 위성에 대한 이야기뿐이다.

야간작업을 하고있는 남로시대대의 전투장을 찾았던 우리는 한 처녀돌격대원의 웨침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야, 저기 우리의 주체위성이 지나간다.》

머리를 들고 밤하늘가를 바라보니 인공위성이 서서히 지나가는것이 보였다.

《저게 우리 위성인지 어떻게 알아?》

《저렇게 하늘을 나는 위성을 보면 다 우리 위성같지던.》

돌격대원들이 저저마다 떠들고있을 때 대대장 김영수동무가 말하였다.

《우리 위성을 먼데서 찾을게 있소?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 우리들모두가 태양의 위성들인데…》

백두청춘들모두가 태양의 위성!

그렇다. 우주를 정복한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영웅청년신화로 빛내여나가는 백두청춘들이다. 이들이야말로 당당히 청년강국을 빛내이는 위성들이라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청년강국을 떠받드는 거동이 될 일념안고 청춘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는 위성들이 백두전역에 숲을 이루고있기에 이 엄혹한 강추위속에서도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는것 아닌가.

태양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위성처럼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영웅청년으로, 청년강국의 기둥으로 억세게 자라는 백두청춘들, 주체위성처럼 언제나 조국을 빛내이는 길에 청춘의 심장을 깡그리 불태우는 그들이 있어 완공의 날은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친혈육의 정으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 현장련합지휘부 보건분과 의료일군들이 돌격대원들의 건강증진과 치료예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나가고있다. 우리 당에서 그토록 아끼고 내세우는 백두청춘들의 건강을 자신들이 책임졌다는 자각을 가지고 보건분과 의료일군들은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나가고있다.

분과장 김장하동무는 분과의 모든 성원들이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고 돌격대원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을 짜고들도록 하고있다.

3호발전소건설장에 현장치료대를 전개한 리광일, 로진혁, 윤봉손동무들은 공사과정에 제기될수 있는 환자와 부상자들의 치료와 질병예방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합쳐나가고있다.

의사 권미옥동무는 돌격대원들의 치료와 긴급히 제기되는 왕진을 맡은데 맞게 언제나 사소한 실수도 없이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정성이 곧 명약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심장에 새기고 치료예방사업에 헌심전력하는것으로 하여 돌격대원들은 그를 우리 의사선생님이라고 정답아 부르고있다.

홍순호, 변정남동무들도 건설장에서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정성껏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돌격대원들의 존경을 받고있다.

이들뿐이 아니라 분과의 모든 성원들이 백두청춘들의 건강을 책임졌다는 사명감을 한시도 잊지 않고 건강증진과 치료예방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자력자강의 정신력은 기적을 안아온다

황해북도려단에서

주체위성의 성과적발사소식에 선군시대 청년돌격정신의 장엄한 우뢰로 화답할 드높은 배짱과 열의에 넘쳐 기적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황해북도려단 청년돌격대원들, 언제건설의 주타격전선에서 영웅청년신화창조의 돌격로를 열어나가고있는 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지금 이 시각도 불굴의 정신력을 충폭발시키며 완공의 그날을 앞당겨나가고있다.

언제축조 및 장석쌓기의 기본전선을 맡은 려단은 온갖 불리한 조건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매일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우리 청년들은 당이 정해준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처럼 내달리며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과 청년문화를 창조하였으며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훌륭한 미풍들을 발휘하였습니다.》

언제콩크리트속벽기초타입에 동원되였던 려단은 현장련합지휘부의 작전에 따라 공사가 끝나는 즉시 언제축조 및 장석쌓기전투에 돌입하였다.

언제축조에 전투력있는 단위들을 배치하여 언제건설을 립체적으로,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려는 현장련합지휘부의 의도였던것이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새겨안은 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용기백배하여 공사에 진입하였다.

모두의 심장은 당 제7차대회장에로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백두청춘의 용맹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할 결의로 높뛰였다.

련속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의 불길높이 열어가는 돌격로, 그것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였다.

돌격대원들의 앞을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은 수없이 많았다. 박달나무도 얼어터지는 강추위가 돌격대원들을 사납게 위협하였다.

살을 에이는듯 한 맵짠 바람도 참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보다 돌격대원들의 가슴을 안타깝게 한것은 혹독한 추위때문에 실어온 물재가 조금만 지체되어도 순간에 얼어붙는것이였다.

영웅청년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에 피와 땀을 바쳐 보답할 일념안고 3대대장 전명일, 1대대장 조승진동무를 비롯한 대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났다.

아늑한 숙소보다도 축조에 쓸 물재를 먼저 찾았고 들어온 물재는 즉시에 처리하군 하였다.

려단지휘부에서는 로력조직과 지휘를 합리적으로 하여 한시도 공사장을 비우지 않도록 하는 한편 물재의 온도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선행시켜나갔다.

려단정치부에서는 공사조건이 불리한데 맞게 화선식경제선동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 울려 공사장이 청춘의 랑만과 희열로 들끓도록 하였다.

세차게 휘날리는 붉은기들, 돌격대원들의 기적과 위훈의 소식을 전해주는 전투속보판들, 현장방송과 려단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는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찬바람, 강추위속에서 언제를 건설한다는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 백두전역에는 그들만이 서있지 않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수천여리의 먼길을 달려온 도와 시, 군일군들의 뜨거운 진정은 돌격대원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에로 떠미는 힘있는 추동력이 되였다.

부모형제들과 고향의 당부를 심장에 간직한 돌격대원들은 불굴의 정신력을 충폭발시키며 언제축조 및 장석쌓기를 다그쳐나갔다.

언제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돌격대원들의 영예와 긍지도 갈수록 높아졌다. 그러나 의연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있었다.

특히 공사속도에 지장을 주는것은 장석쌓기에 쓸 돌이 부족한것이였다.

많은 량의 장석을 단번에 해결한다는것은 간단치 않았다. 그렇다고 막돌을 쓴다면 공사의 질을 담보할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맥을 놓고 주저앉지 않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사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풀어주시였는데 장석때문에 공사속도를 늦춘다면 우리가 어찌 백두청춘이겠는가. 언땅을 까내서라도 장석을 마련하자.

려단장 강호림동무의 불같은 호소에 청년돌격대원들이 호응해나섰다.

김현철, 리경남, 최남혁동무들을 비롯한 돌격대원들은 눈속을 헤치고 언땅을 까내며 한개 또 한개 장석을 얻어냈다.

어떤 돌격대원들은 한맛들이의 장석을 찾기 위해 무릎까지 빠지는 생눈길을 헤치며 산판을 헤매기도 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마련한 장석을 어찌 황금이나 진주보석에 비길수 있으랴.

자력자강, 이것은 모진 고난을 이겨내며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해나가는 백두청춘들의 가슴마다에 자리잡은 억척불변의 신념이다.

지금 황해북도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새로운 신심과 용기에 넘쳐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백배로 분출시키며 언제건설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제끼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제20차 김정일화축전 페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수도 평양에서 개막되였던 제20차 김정일화축전이 페막되였다.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된 이번 축전은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세세년년 길이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충정과 경모심에 떠받들려 불멸의 꽃축전사에 또 한돌기의 빛나는 년륜을 아로새기였다.

2월의 봄명절을 맞으며 활짝 피여난 수만상의 김정일화들로 황홀경을 펼친 축전장을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참관하였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성원들과 해외동포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무관단 성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외국손님들도 축전장을 돌아보았다.

참관자들은 축전장에 펼쳐진 태양의 꽃바다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심의 분출이다, 절세위인의 존함을 모신 김정일화는 태양의 꽃으로 영원토록 만발할것이라고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페막식이 22일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진행되였다.

김기남동지, 양형섭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축전조직위원회와 태양의 꽃을 전시한 단위의 일군들, 불멸의 꽃 보급후원회 회원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 외국손님들이 페막식에 참가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였다.

페막식에서는 축전심사결과가 발표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신 김정일화축전상 상장이 축전에 참가한 많은 단위들과 일군들, 재배공, 개별참가자들에게 수여되였다.

김정일화축전상 상장을 총련중앙상임위원회와 해외동포, 외국인들이 받았다.

또한 이번 축전에 불멸의 꽃을 전시한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에게 김정일화축전 참가증이 수여되였다.

김창도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위원장이 페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안고 살며 투쟁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충정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뜨거운 지성에 의하여 제20차 김정일화축전이 성대히 진행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군군인들과 근로자들, 원예부문 일군들과 과학자들, 세계 여러 나라 화초애호가들과 김일성화김정일화보급후원회 회원들이 앞으로도 꽃재배와 보급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불멸의 꽃들이 더욱 만발하게 할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두가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절세위인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태양의 꽃 김정일화를 민족의 국보로 더욱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불멸의 꽃 축전가》의 주악으로 페막식은 끝났다.

태양조선의 2월명절을 환희롭게 장식하며 대성황리에 진행된 이번 축전은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하신 존함과 태양의 력사는 불멸의 꽃 김정일화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정월대보름날에 비낀 인민의 간절한 소원

각지 인민들 민속명절을 즐겁게 맞이

【평양 2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대성공적발사로 태양민족의 존엄과 영광이 우주만리에 달은 크나큰 기쁨을 안고 온 나라 인민이 22일 민속명절 정월대보름을 뜻깊게 보내였다.

수도 평양으로부터 조국의 북변 라선과 분계연선도시 개성에 이르기까지 방방곡곡은 풍만한 민족적정서와 랑만으로 차넘쳤으며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어린이들의 명절맞이로 흥성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김일성광장, 개선문광장, 평양체육관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서는 학생소년들의 다채로운 민속놀이가 벌어져 명절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연띄우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무릎싸움, 줄넘기 등의 종목들에서 서로서로 재주를 뽐내며 승벽내기를 벌리는 학생소년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은 당의 은정속에 우리의 우수한 민족문화와 전통이 더욱 빛을 뿌리고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거리와 마을, 집집마다 가족들과 이웃들이 모여앉아 오곡밥과 9가지 마른나물을 비롯한 전통적인 명절음식도 들고 장기, 윷놀이 등 민속유희오락도 하면서 흥취를 돋구었다.

수도의 근로자들은 옥류관, 청류관, 창광음식점거리의 식당들을 비롯한 봉사망들에서 평양랭면, 오곡밥, 약밥, 록두지짐과 같은 음식들을 들며 명절을 즐기였다.

사리원시 민속거리 식당들과 함흥의 신흥관, 해주의 옥계각을 비롯하여 특산음식봉사로 이채를 띤 각지의 봉사망들에서도 민족의 향취가 한껏 넘치였다.

뜻깊은 민속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각지 인민들의 가슴가슴에는 우리 민족이 수수천년 바라오던 강국의 리상, 만복의 희망을 모두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가득차올랐다.

그들은 당의 령도따라 천리마, 만리마의 속도로 내달리는 내 조국땅에 더 밝고 휘황한 래일이 마중오고있음을 확신하면서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많은 일을 할것을 약속하였다.

민속명절의 밤 온 나라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간절한 소원과 념원은 불같은 애국헌신으로 사회주의대가정의 행복과 조국번영의 아름다운 미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이였으며 이 땅우에 자력자강으로 빛나는 강성국가를 세계가 보란듯이 일떠세우는것이였다.

— 김일성광장에서 —

인류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

외국인들의 반향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칭송과 경모의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진말레아동기금 회장 진말레싸파리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총대만이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수 있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조선이 제국주의자들의 포악하고 끈질긴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승리와 영광을 떨칠수 있은것은 그이의 선군정치가 있었기때문이다.

무비의 탐력과 배짱으로 민족의 자주권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신 김정일대원수님의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목표를 기어이 수행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인민과의 친선문화련대성 에콰도르 파란다협회 위원장 홀리오 발레스페로스 에스뻰은 김정일각하께서는 선군정치로 조선을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쌓으신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불멸의 업적은 인류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그이의 위업을 가장 완벽하게 계승해나가시는 김정은각하를 모시여 조선은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고있다고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손자 장기는 자기 가정에 배꽃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뜻을 이어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연고자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며 주실수 있는 모든 사랑과 은정을 다 안겨주시였다.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리와 인간사랑의 최고화신이신 자애로운 어버이의 그 모습은 영원히 우리의 심장속에 간직되여있을것이다.

인류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며 위대한 태양의 빛나는 력사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민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새겨질것이다.

에콰도르 김정일대원수회고위원회 위원장 오스왈도 라리바알바라도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21세기의 가장 걸출한 정치원로이신 김정일대원수님을 사회주의와 정의의 수호자, 자주시대의 탁월한 령도자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있다.

위대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시대와 력사앞에 쌓으신 그이의 공적은 참으로 거대하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을 받들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현명하게 령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

【조선중앙통신】

당중앙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해나가는 기풍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사리원대성타올공장을 돌아보고

사리원대성타올공장의 현대화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공장의 현대화실현에서 중시되는 점은 수십년전의 타올북직기들을 CNC화하고 타올생산의 모든 공정에 콤퓨터조종체계를 실현한것이다.

이것은 머지않아 우리 기술로 방직공업부문에서 무인화를 실현할수 있는 귀중한 성과인것으로 하여 해당 부문 전문가들의 초점을 모으고있다.

공장의 문명수준 또한 최상의 높이에로 도약하였다. 옛 모습을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게 현대적으로 전변된 문화회관이며 탁아소, 문화후생시설은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터치게 한다.

이렇듯 자랑찬 성과를 두고 공장일군들은 물론이고 평범한 직포공들까지 공장현대화를 하면서 지도국일군들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고 하고있다.

하다면 웃기관 지도일군들이 어떻게 일해야 아래단위들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스스럼없이 말하게 되는것인가. 이 문제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공장을 취재하면서 우리는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할 오늘의 시대에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적인 역할에 대하여 다시금 새겨보게 된다.

새로운 높이에로 이끄는 정책적지도

아래단위에 대한 웃기관 일군들의 지도사업에서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정책적지도이다.

온 나라가 당정책관철전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경제지도일군들이 아래단위들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은 당정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때문에 아래에 내려가는 지도일군들의 발걸음에는 자못 큰 무게가 실리는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리원대성타올공장에 대한 지도국일군들의 정책적지도과정에 얻은 경험은 참으로 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부문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가는 원칙에서 경제사업을 혁신적으로 작전하고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사리원대성타올공장은 주체57(1968)년 5월 15일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지지도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령도업적단위이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사리원대성타올공장은 전국적으로 타올을 잘 짜는 공장이라고 하시며 타올생산을 전문화하여 질을 높이고 가지수를 늘일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날의 현지지도사적은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에게 있어서 더없는 긍지로, 자랑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수십년세월이 흐르면서 기료품부족과 마모현상으로 직기들이 하나둘 멎어서 공장일군들은 몇년전부터 타올생산지표를 밀어놓고 피복제품생산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타올직기는 특수직기로서 국내에서 살려낼 방도가 거의 없다고 여긴 공장일군들은 차츰 자금을 마련하여 직기들을 수입해오기로 마음먹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기 시작한 3년전이였다.

지도국일군들은 새로운 눈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정형을 하나하나 따져보았다. 타올공장의 직기수입은 지도국적인 심중한 문제로 론의되였다. 많은 일군들이 품을 들여 직기를 수입해온다고 해도 앞으로 계속 그 부속품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당에서 바라는 현대화가 아니라는 론점을 세웠다. 그렇다면 출로를 어디에서 찾을것인가.

지도국책임일군들인 박영진, 김원규동무들과 해당 부서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보니 공장은 공장대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위해 아글타글 애쓰고있었다. 자체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 타올생산공정을 살려보기 위해 공장일군들은 어느 한 단위의 과학자와 련계를 맺고 도비장치의 자동화를 밀고나가고있었다. 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지도국일군들이 포착한것이 있었다. 그것은 공장에서 내밀고있는 직기개조안이 부분적인 개조안으로서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이였다.

지금 세계방직공업은 기계제작, 전자자동화, 고분자화학공업 등 여러분야에서 이룩된 최신과학기술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방직설비의 전면적자동화, 콤퓨터화를 실현하고있었다. 공장의 방식대로 어느 한 과학자에게만 의거하여서는 기계공업의 정수라고 불리우는 직기현대화를 세계적수준에로 끌어올릴수 없었다.

지도국일군들은 최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전국적판도에서 벌어지고있는 현대화의 폭과 높이를 볼 때 공장에서도 기준을 높이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기술적제원이 복잡한 타올직기를 우리 식으로 현대화한다는것이 헐한 일이 아니라는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기회에 타올직기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해놓으면 나라의 방직공업발전에서는 큰 돌파구가 열리게 될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이 바라는 현대화입니다.》

당정책관철의 기준과 높이를 옳게 설정해주는것, 바로 이것이 경제지도일군들이 정책적지도에서 첫자리에 놓아야 할 문제이다. 지도국일군들은 한개 공장 직기현대화문제가 나라의 방직공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옳은 정책적 안목을 가지고 포착했으며 공장에서 당의 뜻대로 현대화를 실현할수 있도록 그 기준을 바로 설정해주었다.

그 누구보다 당정책을 더 깊이, 더 먼저 알고있는 사람들은 바로 웃기관 지도일군들이다. 때문에 아래단위에 내려간 지도일군들은 그 누구보다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는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나 전개하여도 정책적대를 바로세울줄 알아야 하는것이다. 그래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아래단위들을 책임진 지도일군들이 있는것이다.

문화후생시설문제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로동자들이 최상의 문명을 누릴수 있게 꾸려진 여러 산업시설들을 돌아본 지도일군들의 시야는 마땅히 아래단위 일군들과 달라야 한다.

시대의 전형으로 창조된 본보기단위들이 태여날 때마다 많은 성, 중앙기관의 책임일군들이 참관하고있다. 그 과정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현대화의 높이가 어디까지이며 로동자들이 누려야 할 문명의 기준이 어떤것인가를 배웠으면 그것을 아래단위들에서 실현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할 의무가 웃기관 지도일군들에게 지워져있다.

지도국일군들은 타올공장의 전물개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해 형성안토의에서부터 높은 요구를 제기하였다.

수십차례에 걸치는 토의와 건축설계단위와의 련계밑에 지도국에서는 문화회관과 탁아소, 사무실청사 등을 조화롭게 배치한 설계안을 완성하였다.

로동자들의 생활조건을 충분히 반영한 문화회관이며 탁아소가 옛 모습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일떠설 때 목욕실과 미용실, 운동실까지 갖춘 문화후생시설 형성안이 공장구내에 또다시 나붙었다.

종업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기의 아이들이 자라게 될 탁아소를 그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일떠세우는것만으로도 가슴에 그들먹이 차오르는 행복감을 느끼고있던 종업원들이였다. 푸선미를 가진 멋쟁이 건물에 내부장식이 황홀한 문화후생시설형성안을 보면서 종업원들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날로 좋아지는 자기들의 생활을 느끼였고 그 문명의 향유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더욱 일손을 다잡았다.

지도일군들이 당정책관철의 높이와 기준을 옳게 설정해주는 정책적지도를 잘해야 아래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와 창발성, 자력자강의 정신이 그만한 높이에로 오르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훌륭한 열매를 거둘수 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당에서는 모든 부문의 지도일군들이 아래단위들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이들처럼 심도있고 정확하게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뚜렷한 결실이 맺힐 때까지

당정책관철에서 기준을 옳게 정해주는 정책적지도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책임적으로 도와주는 지도사업이 아래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기억속에 남게 된다.

현대화의 높이를 옳게 설정해준 지도국일군들은 그 실현을 아래단위 일군들에게 맡기고 요구성만 높인것이 아니라 직접 책임지는 립장에서 끝까지 도와주었다.

지도국일군들이 잘한것은 타올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위해 강력한 과학기술력량을 조직하는 사업을 직접 나서서 내민것이다.

타올직기의 현대화를 하자면 유연창대직기의 자동화를 해본 경험이 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공학부 자동화체계연구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당시 연구실에서는 중요과제들을 많이 맡고있어 무턱대고 요구할 형편이 못되였다. 과장 김철수, 부원 리철주동무들은 대학의 책임일군들을 찾아가 타올직기현대화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 절절히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타올공장의 현대화를 도와주는 사업은 대학적인 사업으로 론의되여 타올직기공정뿐아니라 염색공정도 다 현대화할수 있게 자동화공학부, 기계과학기술대학, 열공학부 과학자들을 망라한 강력한 연구력량이 편성되였다.

이렇게 되니 공장의 현대화사업은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활기있게 진척될수 있었다.

공장의 현대화를 위해 내려온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권위있는 과학자들이 실태를 료해하고 대담하게 설계를 밀고나갔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현대판 홍길동이라는 애칭을 받아안은 자동화공학부 자동화체계연구실 실장 정일철동무는 공장을 돌아보고 수십대의 타올북직기를 유연창대식직기로 개조하되 CNC화하여 기계공장들에서처럼 CAD/CAM기술을 리용한 콤퓨터조종체계를 실현하고 여기에 기업관리정보화체계를 결합하여 통합생산체계를 실현하자는것을 제안하였다. 일군들은 물론 수십년동안 직기를 다루어온 로동자들도 깜짝 놀랐다. 특히 타올자카드직기는 일반직기와 달라서 처리해야 할 자료량이 방대한데 어떻게 현대의 종합조종반으로 임의의 천조직과 문양, 색깔 등을 다 조종하겠는가고 머리를 저었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배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그때 이들에게 확고한 과학기술적타산이 있은것은 아니였다고 한다. 다만 자기들의 역할에 따라 나라의 방직공업이 높은 수준에 올라서는가 아니면 현재상태에 머물러있는가가 결정된다는 비상한 자각이 보다 앞섰던것이다.

지도국일군들은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려는 우리 과학자들의 배짱과 신념에서 더 큰 힘을 얻었으며 그들을 믿고 지향한 현대화사업을 결심한것이 얼마나 잘한것인가를 절감하였다. 한편 공장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사업을 소극적으로 내밀었던 지난날을 돌이켜보게 되였고 우리 원수님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한다는것이 어떤것인가를 새겨안게 되였다.

타올공장의 현대화는 힘있게 진척되여 참으로 놀랄만 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현재 세계적으로도 많은 나라들에서 기술적으로 어렵고 가격이 비싸 종합조종대신 개별조종으로 타올직기의 복잡한 요소들을 움직이고있다. 그러나 자동화공학부 자동화체계연구실 과학자들은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에 종합조종반을 훌륭히 설계하여 내놓았으며 밤낮으로 전투를 벌려 30대의 종합조종반제작도 손색없이 해내였다.

결과 타올북직기들이 유연창대식직기로 개조되고 여기에 CAD/CAM체계와 기업관리정보화체계가 결합된 높은 수준의 타올생산공정의 통합생산체계가 확립되였다.

지난 시기 쟈카드직기에서 새로운 문양의 타올을 짜려면 여러명의 기능공이 달라붙어 도안을 그리고 채눈종이에 무늬화를 한 다음 문지천공을 하여 틀차림을 하는데만도 6개월이 걸리였다. 오죽하면 공장의 타올수건에 새겨진 인삼무늬가 20년이 흐르도록 달라지지 못하고 그냥 직기에 걸려있었겠는가. 그러나 지금은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 임의의 문양을 콤퓨터로 화상처리하여 직기에 전송하면 1시간내에 제품이 생산되여나오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우리 당의 뜻대로 공장의 타올제품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으로 만들수 있는 눈부신 성과였다. 지금 공장일군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생산공정을 무인화할수 있다고 말하고있다.

이것은 타올공장에서만이 아니라 방직공업부문에서의 일대 혁명이라고도 할수 있는 기적이다.

설비시운전이 성공한 날 공장의 낡은 직기들을 오래동안 다룬 수리공들은 년로보장을 받기전에 15년전부터 가동하지 못하던 기대들이 돌아가는것을 한번 보았으면 하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마음먹은대로 여러가지 문양의 타올이 순식간에 척척 나오는것을 보니 눈물이 막 난다고 하면서 너무 기뻐 과학자들과 지도국일군들의 손을 잡고 놓을줄 몰라했다.

평양방직기계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흥분도 이를데 없었다.

2009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유연창대식직기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낸 공장을 몸소 찾으시여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거둔 성과를 축하해주시면서 앞으로 더 성능이 높은 직기를 만들라는 영예로운 과업을 주시였다. 이번에 사리원대성타올공장의 타올북직기개조를 도와주면서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할수 있는 큰걸음을 내짚을수 있었다.

타올공장만이 아니라 련관단위들의 유훈관철전도 힘있게 떠밀어준 현대화사업이였다. 웃기관 일군들의 옳은 지도사업은 이렇듯 커다란 영향력과 생활력을 낳는다.

염색에서의 후처리공정을 우리 식으로 확립하는 과정에도 지도국일군들은 자기들이 책임지는 립장에 서서 마지막까지 밀어주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립전조기만은 수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있었다. 리유는 우리 나라에서 아직 설계조차 못해본 기계이고 설사 설계가 완성된다해도 어느 단위에서 이렇게 통체가 크고 복잡한 설비를 제작하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열공학부 과학자들은 공장종업원들과 함께 진지한 연구를 거듭한 끝에 지난 시기 리용하던 낡은 호브키를 립전조기로 개조할수 있는 창안을 내놓았다.

과학자들이 달라붙어 설계를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지만 그 제작을 어디에서 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섰다.

이때에도 지도국일군들은 전화로 련계나 취해주는 식이 아니라 직접 전국각지의 이름있는 공장들을 찾아다녔다. 결과 공장에서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와 평양방직기계공장 로동계급과 힘을 합쳐 립전조기뿐아니라 풀연화기도 우리 식으로 훌륭히 제작해낼수 있었다.

아래단위 일군들의 사업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법이다. 바로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 웃기관 일군들이 있다.

만약 지도국일군들이 아래단위에 내려가 당정책관철의 기준을 정해주는데만 그치고 우에 앉아 빨리 하라고 독촉이나 하고 장악사업만 하였더라면 오늘과 같은 훌륭한 결실을 안아오지 못하였을것이다.

공장의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도 책임일군들은 지도국적인 문제로 전환하고 해당 부서들에 대한 분공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하여 온 지도국이 떨쳐나 도와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건설이 단 한순간도 중단됨이 없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였다.

지도국일군들이 직접 인수원이 되여 자동차를 타고 전국각지를 오가며 자재를 실어날랐고 마감건재를 어떻게 효과있게 리용하여 건축물의 미적가치를 살리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공장의 주인보다 더 머리를 쓰며 그 해결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여다녔다. 이렇게 지도국일군들이 공장현대화를 자기 일처럼 여기고 책임적으로 밀고나가니 일이 안될수가 없었다.

그들의 일본새에 감동된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자력자강의 정신력은 더욱 높아져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언제든지 일터에 모시여도 기쁨을 드릴수 있는 본보기공장으로 꾸리려는 불같은 열정이 힘차게 나래쳤다.

공장종업원의 대다수가 녀성로력이지만 이들은 자기 손으로 블로크도 찍고 날랐으며 연약한 손으로 철근가공도 하고 한층한층의 층막을 치면서 모든 건물들을 훌륭하게 완성해나갔다.

웃기관에서 아래단위들에 대한 지도사업을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는 립장에 서서 밀고나갈 때 당정책관철로 들끓는 로동자들의 창발성, 자력자강의 정신력은 더욱 앙양되며 그 어떤 조건에서도 모든 문제를 힘있게 풀어나갈수 있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수자장악에나 급급하고 어디를 도와주라고나 하는 식의 지도사업은 누구나 다 할수 있다. 이런 지도일군들을 아래단위에서는 환영하지 않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대로 시대의 본보기단위창조에서 큰 성과를 거둔 지도국일군들의 일본새는 모든 부문 지도일군들이 본받아야 할 귀중한 경험으로 된다.

＊ ＊

크지 않은 사리원대성타올공장에서 소문없이 나라의 방직공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타올직기공정의 통합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짧은 기간에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로동자들의 문명한 생활터전을 꾸려놓은것은 크게 찬양할만 한 성과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귀중하게 여기게 되는 성과는 지도국일군들이 당중앙의 의도대로 사리원대성타올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을 사상정신적으로나 투쟁기풍, 기술력과 생산력에 있어서 선구자집단으로 키워 시대의 전렬에 떳떳하게 내세운것이다.

모든 부문의 지도일군들이 이들처럼 시대앞에 지니고있는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당중앙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해나가는 기풍을 발휘할 때 그 어느 단위에서나 시대를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

본사기자 리철목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이며

평범한 날들에 새겨진 참모습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의료일군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우리 시대 청년들의 장하고도 미더운 모습은 전설의 동음 우렁찬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서만 찾아볼수 있는것이 아니다.

얼마전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을 찾았던 우리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우리 청년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감동깊은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건부문 일군들속에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행과 감동적인 사실이 많이 나오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입니다.》

몇달전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림상제1의학부 혈액학강좌의 입원실로는 평안남도에서 사는 한 녀성이 들어왔다. 환자의 상태는 대단히 위급하였다. 급성혈액질병으로 심하게 앓고있는 환자, 여러번의 수혈과 함께 필요한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환자의 상태는 도저히 호전될줄 몰랐다. 그러던 어느날 이곳 의료일군들은 환자에게서 전신출혈의 징조를 감촉하였다. 이런 경우 즉시 짧은 많은 량의 피를 넣어주어야만 환자를 살릴수 있음을 알고있는 의료일군들인 리성준, 남련희동무들은 지체없이 자기들의 팔소매를 걷어올렸다. 그러나 오래도록 앓으며 자기의 상태를 잘 알고있는 환자는 거듭 도리머리를 저었다.

《선생님들, 그만두십시오. 그렇게 피를 받아 제 건강이 회복될수 있다면 수혈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 병은 이미…》

하지만 리성준, 남련희동무들은 여러대의 주사기를 갈아대며 한방을 또 한방을 피를 뽑아 환자의 몸에 넣어주었다. 예순을 가까이하고있는 환자는 그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격정에 넘쳐 우리에게 토로하였다.

어찌 그렇지 않을수 있으랴. 가정을 이룬지 몇달 안되는 리성준동무와 비록 앓는 몸이였지만 환자의 소생을 위해 주저없이 나선 간호장 남련희동무, 환자의 피형과 맞지 않아 시종 안타까움의 빛을 감추지 못한 의사 장은아동무와 앓는 간호장의 팔에 주사바늘을 꽂을수 없어 선뜻 나서지 못하다가 독촉을 받고서야 눈굽을 적시며 수혈을 진행했다는 간호원들인 리옥경, 주은별동무들.

수혈이 시작되여 얼마후 한 녀성이 팔딱이며 다급히 입원실로 뛰여들어왔다. 환자의 간호자로부터 수십일동안 낮과 밤을 이어가며 정성을 다해온 의료일군들이 지금은 또 자기들의 몸에서 많은 량의 피를 뽑고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달려온 그는 이렇게 호소하였다.

《선생님들, 난 환자의 친척입니다. 저의 피도 뽑아주십시오.》

그러나 의료일군들의 만류로 그의 요구는 수락되지 못하였다. 그날 저녁 환자는 기적적으로 일어나앉았다. 그후 환자의 상태는 차츰 호전되였다. 강좌장 김혜성, 과장 전소미동무를 비롯한 강좌의 일군들은 여러 중환자들이 제기되는 바쁜 속에서도 환자의 건강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때로부터 몇달후 그 녀성은 병원을 나섰다. 지난해 10월 간호원 리옥경동무는 함경북도에서 온 급성혈액질병환자에게 많은 량의 피를 바쳐 그를 소생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20대, 30대 초엽의 새 세대 의료일군들이 자기들의 많은 피를 아낌없이 바친 그날들은 이 땅에 흐르는 평범한 날들이였다.

최중증상태의 환자들을 기적적으로 살려낸 우리의 주인공들은 그처럼 장한 일을 하고서도 누구나 쉽게는 잊을수 없는 그날들을 기억하지 못하고있었다.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을 너무도 응당한 일로 여기고있기때문이다. 환자들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치는것을 례사로운 일로 여기는 새 세대 의료일군들의 소행에서 우리는 인민적보건제도의 오늘과 래일을 떠메고나갈 우리 시대 청년들의 참된 모습과 더불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질 사회주의보건의 창창한 래일을 보았다.

본사기자 방경찬

오늘의 총진군에서 기적을 창조할 신심에 넘쳐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힘있게 진행되는 의료봉사활동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드높은 열의를 안고 각지 치료예방단위 의료일군들이 경제강국건설의 중요전구들마다에 달려나가 현장의료봉사활동을 맹렬히 벌려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료봉사사업은 인민들에게 무상치료제에 의한 당과 국가의 의료상혜택을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새해전투에 진입하기 전부터 만단의 준비를 철저히 갖춘 각지 치료예방단위 현장치료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즉시 새해전투에 진입한 공장, 기업소, 농장들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 현장치료대를 전개하고 의료봉사활동을 전투적으로 진행하였다.

현대적인 의료설비들과 의약품들을 가지고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와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나간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김만유병원 현장치료대원들은 로동자들에 대한 검진과 치료를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 달려나간 보건성 치과종합병원 의료일군들도 정초부터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와 전기기관차생산에 떨쳐나선 이곳 로동계급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평양산원, 보건성 피부병예방원, 평양안과병원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치료예방단위들에서도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주요전투장들에서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생산자들의 사기를 적극 북돋아주었다.

평안북도, 평안남도안의 의료일군들은 총진격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석탄전선들에 달려나가 의료봉사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이들은 도안의 여러 탄광련합기업소들에서 현장의료봉사를 적극 짜고들어 당 제7차대회를 더 높은 석탄생산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나가고있는 탄부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해주고있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전투장들에 달려나간 각지 치료예방단위 현장치료대원들도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고있는 현장치료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으며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주령봉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평양안과병원에서— 본사기자 찍음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다그쳐

순천시산림경영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전투를 본격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온 나라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순천시산림경영소에서 양묘장들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실현된 나무모생산기지로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최성철동무를 비롯한 산림경영소의 일군들은 모체양묘장과 숲사이양묘장을 물질기술적으로 보다 튼튼히 꾸리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지난해 산림경영소에서는 양묘직장의 현대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었다.

오병삼동무를 비롯한 양묘직장의 종업원들은 어려운 속에서도 세멘트, 강재, 혼석을 비롯한 자재들을 자체로 마련하여 사무실건물들을 짧은 기간에 일떠세우고 분수설비가 갖추어진 야외재배장, 지하저장고 등을 꾸려놓아 한해에 61만여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나무모밭을 평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규격화된 포전들로 전변시켰으며 기둥들을 세우고 관수를 실현하여 나무모들을 튼튼히 키울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성형기와 혼합기, 분쇄설비를 태양빛전지판과 발동발전기를 리용하여 얻은 전기로 가동시킬수 있게 하여 나무모영양단지생산을 중단없이 내밀수 있게 하였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사업소의 과학기술보급실에 태양빛전지판, 콤퓨터, 액정텔레비죤, 록화기, 축전지, 변류기를 보장해주어 종업원들이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에 필요한 기술학습을 실속있게 하도록 하였다.

산림경영소에서는 숲사이양묘장을 꾸리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나무모들의 사름률을 높이는데서 숲사이양묘장을 꾸리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고있는 산림경영소의 일군들은 산림감독원들이 담당구역안에서 숲사이양묘장들을 꾸려놓고 나무모생산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원상리, 신리, 직동1구역의 산림감독원들은 숲사이양묘장들을 잘 꾸려놓고 해당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된 수종이 좋은 창성이깔나무, 세잎소나무 등을 한해에 수십만그루씩 생산보장하고있다.

산림경영소에서는 나무모생산전망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일군들과 양묘직장의 종업원들은 모체양묘장의 10여정보에 대한 전면관수를 실현하고 회전분무식원형삽목장건설, 푸른가지삽목에 의한 나무모생산, 200㎡의 나무모온실건설 등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하여 식수절기에 더 많은 나무모를 생산보장하기 위한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세계정치사에 특기할 자주정치의 거장, 가장 걸출한 애국자

캄보쟈국왕과 대왕후가 우리 나라 대사관에 대형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광명성절을 축하하여 캄보쟈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와 대왕후 노로돔 모니니에트 시하누크가 13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대형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국왕과 대왕후의 위임에 따라 왕궁담당 부수상 콩 쌈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쟈왕국정부 왕궁성대표단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대원수각하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씌여져있었다.

여러 나라 정당, 기관대표단, 인사들 우리 나라 대사관, 대표부 축하방문

광명성절을 축하하여 적도기네민주당대표단, 에질트아랍사회주의당대표단, 만마동종의학과학연구소대표단이 11일부터 13일까지 기간에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방문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에질트아랍사회주의당 위원장 와히드 알 욱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선대사관을 방문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조선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우리는 김정은각하께와 조선인민에게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와 관련하여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린다.

우리는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언제나 적극 지지할것이다.

만마동종의학과학연구소 소장 린 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세계 진보적인류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정일각하의 탄생일을 앞두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였다.

참으로 《광명성-4》호의 성공적인 발사는 자주적인 정화적우주리용권리를 당당히 행사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위대한 승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적대세력들의 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칠것이며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할것이다.

※ ※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 이란 알하디 이슬람교선전기구 위원장, 이란국제태권도협회 회장이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기간에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축하방문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 다미안 오그본나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각하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인사를 올린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께서 건강하시여 조국의 자주권수호와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령도하시는 고귀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

이란 알하디 이슬람교선전기구 위원장 하디 카로리는 다음과 같이 칭송하였다.

김정일각하는 온 생애를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치신 가장 걸출한 애국자,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그이께서는 선군정치로 미제의 암살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신다.

※ ※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각계 인사들이 5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에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들을 축하방문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에 네팔정부 부수상 겸 녀성, 어린이 및 사회복리상인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네팔공산당(통일된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지도자인 전 네팔정부 수상, 네팔기자협회 위원장, 네팔주체연구소 부소장, 네팔자력갱생연구회 위원장, 네팔선군정치지지협회 위원장, 방글라데슈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방글라데슈자터야당 총비서,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위원장, 방글라데슈로동당 국제비서,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위원장, 방글라데슈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 몽골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집행위원장, 로씨야련방공산당 하바롭스크변강위원회 비서,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전국지도자,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국제비서,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부리사장,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 나이제리아국가우주연구개발총국 총국장, 김정일장군빼루친목회 위원장, 프랑스파익금진당 국제비서,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민주콩고로동당 총비서, 민주콩고인민혁명당 총비서대리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은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방글라데슈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시대와 력사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

나이제리아국가우주연구개발총국 총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김정은원수각하를 모시여 조선은 오늘과 같은 우주강국으로 전변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경제강국건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한다.

경축행사 진행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말마, 벨가리아, 스위스에서 4일부터 9일까지 기간에 경축집회와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행사장들의 정면에 모셔져있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사진, 도서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말마련맹련대성발전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양끈지역위원회 비서인 타 윈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말마련맹련대성발전당 전체 당원들의 명의로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의 광명성절경축행사는 매우 뜻깊은 의의를 가진다.

김정일각하께서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한 령도력을 지녀시고 세계자주화를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조선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우리는 조선로동당의 풍부한 경험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말마련맹련대성발전당은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의의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

벨가리아 쏘피아에 있는 김일성도서실 책임자 마리아 안겔로바를 비롯한 연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하신데 대하여, 우리 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어머니당, 강철같은 규률과 전투력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다지신데 대하여,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뫼체르는 우리 공화국을 강력한 핵억제력을 갖춘 강국으로 전변시키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였다.

벨가리아, 스위스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성명, 담화 발표

광명성절경축 앙골라준비위원회가 12일 성명 《위대한 김정일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를 발표하였다. 성명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빛나는 혁명생애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그이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선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만방에 빛내여주시였다. 그이의 친솔을 그대로 체현하신 존경하는 김정은각하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있는 조선인민은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한 인공지구위성발사 등 세계를 진감시키는 력사적쾌승을 련이어 이룩함으로써 선군조선의 국력을 온 세상에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광명성절경축 앙골라준비위원회는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리라고 확신한다.

※ ※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만마와 로씨야인사가 최근 담화를 발표하였다. 만마련맹련대성발전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양끈지역위원회 비서인 타 윈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탄생 74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조선인민은 김정일각하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업적을 무궁토록 빛내여나가고있다.

김정일각하께서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가장 중요한 업적은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나라의 자주권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신것이다. 우리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성대히 열리게 되는 올해에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당을 강화하고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 드미뜨리 꼬스젤꼬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이룩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은 그 어디에도 비교할수 없는 업적중의 업적이다.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하여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사회주의위업의 과학성과 정당성, 그 승리의 필연성에 대하여 확신하게 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인 홍콩세로부터 조선의 사회주의를 수호하시기 위하여 선군정치를 펼치시였다.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쌓으신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으며 세계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남아있을것이다.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그이의 사상과 위업을 끝까지 실현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굴욕협상에 항거하는 재단설립운동

남조선에서 지난해말 친일매국노들이 일본당국자들과 벌려놓은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협상을 무효화하기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날이 갈수록 더욱 격렬해지고있는 속에 재단설립운동이 광범히 추진되고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폭로된바와 같이 남조선보수패당이 일본과의 매국협상에서 꾸며낸 《합의》에는 《일본으로부터 10억엔을 받아 〈위안부〉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따라 남조선이 재단을 설립하면 《지원》의 명목으로 돈을 내겠는데 그것은 국가적배상이 아니라는것이 일본반동들의 립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던져주는 몇푼의 돈에 현혹되여 상전의 날강도적요구를 고스란히 받아물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서슴없이 팔아먹은 매국역적들의 죄악은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냈다.

쓸개빠진 역적패당은 저들의 친일매국행위에 대해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설립에 기여》한것으로 여론을 오도해나섰다. 보수패당의 파렴치한 망동에 수치를 느낀 남조선인민들은 시민사회단체주도의 재단설립운동에 나서게 되였다.

지난 1월 14일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우리 겨레 하나되기운동본부, 참여련대, 민주로총을 비롯한 각계 단체들은 일본군성노예문제협상무효를 위한 《전국행동》결성식을 가지였다. 단체들은 보수당국이 추진하는 《위로금관련 재단설립》책동에 시민사회계의 《정의기억재단설립》으로 맞설것을 선언하고 그 실행단계에 들어갔다. 1월 30일에도 이 단체들은 일본군성노예문제협상의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성노예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설립의지를 다시한번 피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굴욕협상으로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이 또다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성토하면서 재단설립으로 일본군성노예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일본의 과거죄악을 까밝히며 아이들에게 옳바른 력사를 가르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매국협상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우리 시민들이 자금을 모아 재단을 만들자고 호소하였다. 이에 화답하여 참가자들은 《우리끼리 재단을 만들자.》고 웨치면서 반일, 반《정부》투쟁기운을 고조시키였다.

남조선언론들은 재단설립운동이 시작된이래 불과 10여일동안에 모금액이 1억원에 달하였다고 전하였다.

분석가들은 《전국행동》이 오는 3월에 재단을 설립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는데 도처에서 분출하고있는 반일, 반《정부》감정이 재단설립운동을 더욱 추동하게 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한편 《전국행동》은 굴욕협상을 반대하는 다양한 형식의 투쟁을 적극 전개하며 3월 1일을 《대규모전국행동의 날》로 정하고 남조선의 전지역에서 집회와 행진을 벌릴 계획을 발표하였다.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도 《우리는 일본이 내는 돈이 필요없다.》고 하면서 사회 각계의 재단설립운동을 지지하며 현대투쟁에 적극 나서고있다.

본사기자 장 윤 남

죄악의 력사는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다

력사에는 세인을 경악케 하는 범죄만행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지만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조선녀성들에게 저지른 성노예범죄보다 더 잔악하고 야만적인 죄악은 없다. 일제의 총칼밑에 얼마나 많은 조선녀성들이 피흘리며 숨지였고 침략자들의 변태적인 욕구의 희생물로 된 녀성들은 또 그 얼마인가.

하지만 일본은 패망후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저들의 성노예범죄의 국가적,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있다. 오히려 뻔뻔스럽게 과거범죄사를 력사의 흑막속에 영영 묻어버리려고 꾀하면서 우리 민족과 인류량심에 도전해나서고있다. 그 대표적실례가 바로 지난해말 서울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하여 벌려놓은 협상놀음이다. 이 협상에서 일본은 몇푼의 돈을 내는 대가로 성노예범죄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 배상의 국가적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였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극악한 성노예범죄를 고발하는 상징물인 성노예소녀상의 철거를 남조선당국에 강요해나서고 협상후에는 성노예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인 해결》을 떠들며 더이상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여론화되지 못하게 하려고 획책하였다.

천인공노할 성노예죄악의 력사를 덮어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의 교활성과 철면피성은 피해자들에게 한사코 《위안부》의 딱지를 붙이려고 발광하고있는데서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일본군성노예범죄의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강제로 끌려간 녀성들이며 유괴으로 위장된 성의 고역장에 갇혀 조직적인 집단강간을 강요당한 말그대로 성노예들이였다. 그에 대하여 유엔인권위원회 제52차회의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녀성폭력문제담당 특별조사관은 당시 일제가 수많은 녀성들을 군성노예로 끌고가 가혹한 성폭행을 강요하였으며 그것은 군사적성노예제도였다고 폭로하였다. 일본의 동맹국들의 정계인물들조차 성노예문제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망동에 대해 나치스의 유태인대학살을 부정하는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녀성들이 성노예로 살았다는것은 력사적사실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파렴치한 일본반동들은 력사의 진실을 뻔뻔스럽게 부정하며 성노예피해자들을 끈질기게 《위안부》로 모독하고있다. 그것이 성노예피해자들을 돈에 팔리워 때춘에 종사한 녀성들, 전쟁터에서 음주접대나 가무 등으로 군인들을 위안한 녀성들과 동일시함으로써 저들의 반인륜적인 성노예범죄의 진상을 영원히 흑막속에 묻어버리려는 술책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성노예범죄의 력사를 덮어버리려는 일본의 파렴치성은 그에 대한 국가적, 법적책임을 부정하고있는데서 더욱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성노예범죄는 일제의 군부와 정부의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벌어진 국가범죄로서 그 무엇으로써도 부정할수 없는 력사적사실이다. 1990년대초에 일본군부의 문서고에서 성노예범죄를 당시 군부가 조직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서가 처음으로 발굴되고 뒤이어 일본정부도 《고노담화》를 발표하여 사실을 자인하였다. 2000년에 열린 국제녀성전범법정에서는 히로히또가 《칙령》 제300호를 통하여 성노예범죄를 승인한 내용이 기소되였다. 2015년 6월 일본의 지식인 281명은 성명을 발표하여 《위안소》의 설치, 운영관리의 주체는 민간업자가 아니라 일본군이라는것이 명백하다고 하면서 당국이 국가적책임을 인정할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섰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고노담화》마저 인정하지 않으면서 성노예범죄의 국가적책임을 부인해왔다. 이것은 국가의 계획적, 조직적범죄로서의 일본군성노예범죄의 엄중성을 어떻게 하나 가리워보려는 철면피한 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이 성노예범죄에 대한 국가적배상을 거부하고있는것도 그 만고대죄의 력사를 숨기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성노예범죄에 대한 국가적배상,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배상의무를 철저히 거부해왔다. 지난해말에 있은 일본군성노예문제협상에서 일본당국이 몇푼의 돈을 내기로 한것은 성노예범죄에 대한 저들의 국가적배상을 어떻게 하나 회피하려는 철면피한 망동이다. 일본당국자들자체가 저들이 돈을 내는것은 국가적배상이 아니라고 공공연히 떠들었다.

현실은 일본반동들에게 성노예범죄문제와 관련한 력사적진실을 밝히고 그것을 인정할 의지가 꼬물만큼도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과거의 흑대형인권유린범죄인 성노예범죄를 기어코 덮어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의 파렴치한 력사부정행위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치솟는 민족적분노를 금치 못하고있으며 인류량심은 경악하고있다. 그런데도 남조선의 친일매국역적들은 치떨리는 성노예범죄를 몇푼의 돈으로 무마시키려고 발광하는 일본반동들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짓그리밟아먹고있다. 지금 일본반동들이 과거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엄청난 죄악의 력사를 지워버리려고 날뛰고있는것은 골수에 배긴 재침야망의 뿌렷한 발로이다. 남조선괴뢰패당이 여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친일매국행위를 거리낌없이 일삼는것은 일본반동들에게 재침의 길을 열어주는 용납 못할 역적행위로 된다.

잔악무도한 일제의 성노예범죄를 우리 민족은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김 철 남

령토강탈을 노린 비렬한 광대극

일본은 해마다 2월 22일이 되면 시마네현에서 《다께시마(독도)의 날》행사라는것을 벌려놓군 한다.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을 내세워 2005년에 《다께시마의 날》이라는것을 정해놓고 그 다음해부터 년례적인 광대극을 펼쳐놓고있다. 일제가 《시마네현고시》 제40호를 발포하여 우리 나라의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1905년 2월 22일을 잊지 않는다는것이다. 때문에 《다께시마의 날》행사는 한줌도 안되는 일본반동들이 썩은 물의 싸그쟁이들처럼 오구구 모여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넋두리를 늘어놓는것으로 일관된 비렬한 광대극이다. 다른 나라의 령토를 강탈하는데 이골이 난 강도들만이 펼쳐놓을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놀음이다.

일본이 《독도령유권》을 주장하는 그따위 황당한 광대극을 벌린다고 하여 우리 나라 신성불가침의 고유한 령토인 독도가 일본령토로 바뀌여질수는 없다.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오히려 세상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만을 자아내고 일본이야말로 배우 파렴치한 나라임을 드러내보일뿐이다.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이 얼마나 부당한가 하는것은 일본국내에서 발굴된 력사자료들이 보여주고있다.

몇해전 남조선의 한 교수가 일본륙군성 참모국이 1877년에 제작한 《대일본전도》를 일본에서 입수하여 처음으로 공개한 일이 있었다. 그 지도에는 일본령토전체가 자세하게 그려져있다. 그런데 독도만은 그려져있지 않다. 왜냐하면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기때문이다.

1899년 일본륙지측량부가 20만분의 1의 크기로 만든 지도의 구역일람표에도 독도가 명기되여있지 않다.

1876년 일본해군성이 편찬한 《조선동해안도》, 일본수로국이 편찬한 《환영수로지》와 《조선수로지》를 비롯하여 1905년까지 나온 많은 지도들도 독도를 조선령역안에 포함시키였다.

모든 사실은 독도가 우리 나라의 주권이 당당히 행사되는 조선의 신성한 령토라는것을 당시 일본자체가 인정하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지난날 독도에 대한 임대청원을 한 일본인도 독도를 조선령토로 인정하고있었다. 1903년부터 독도수역에서 비법적인 물개잡이에 종사한 나까이 요사부로가 직접 쓴 《사업경영개요》에 의하면 그는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물개잡이독점권을 얻기 위해 《리양꼬섬(독도의 유럽식명칭)을 조선령토로 믿고 동국정부(즉 조선봉건왕조)에 임대청원할 결심》을 가졌으며 이로부터 1904년에 수도에 찾아가 《그 섬이 울릉도에 부속된 조선의 령유라고 생각하여 장차 통감부(조선봉건왕조)에 가서 할바가 있지 않을가 하여 상경하였다.》고 하였다.

나까이가 독도의 《무주지》설을 주장하게 하고 독도의 임대청원을 《리양꼬섬 령토편입 및 임대청원》으로 바꾸도록 꼬드긴것은 일제의 해군성이였다.

로일전쟁과 관련하여 조선동해상에 망루와 해저전기선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있던 일제의 해군성은 나까이의 청원을 독도강점의 꿈을 이룰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나까이를 내세워 독도의 《무주지》설을 주장하도록 하였다. 그후 일본내각이 나까이의 청원을 승인하였고 그에 따라 시마네현청이 1905년에 《시마네현고시》 제40호라는것을 조작발포하여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키는 책동을 벌렸던것이다. 1905년이라고 하면 일제가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전락시킨해였다. 이것은 일제가 조선강점정책실현의 한 고리로서 우리 나라의 독도를 강탈하려고 날뛰였다는것을 말해준다.

국제법상 령토취득의 기본원칙들에 비추어보아도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참으로 부당하다. 독도에 대하여 《무주지선점》이 이루어진것은 벌써 512년이였다. 당시 울릉도와 독도를 령역으로 하는 조선인제통의 우산국이 신라에 의하여 통합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독도에 대한 완전한 령유권을 가지게 되였다. 또한 1900년에 우리 나라 봉건왕조는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독도에 대한 령유권을 재삼 선포하였다. 반면에 일본은 1905년에야 강도적방법으로 《독도령유권》을 주장해나섰다. 그리고 주인없는 땅을 자기 령토에 편입시킬 때에 응당 린접국가에 사전협의와 조회를 요구하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게 되여있는 관례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일본은 오가사와라섬을 자기의 행동로 할 때 미국, 영국 등과 몇차례 협의했고 유럽 12개 나라들에 이 섬에 대한 일본의 관리를 통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편입》과 관련해서는 린접국인 조선봉건왕조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과도 사전협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더우기 사후통보도 하지 않았다.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1898년 7월에 오가사와라의 무인도 미나미도리섬의 도꾜부소속을 결정했을 때 도꾜부고시를 《요미우리신붕》과 《미야꼬신붕》 등 중앙신문들에 게재했지만 독도의 《시마네현편입》만은 일본의 104개 신문들중 단 1개 신문에도 싣지 않았다. 한 력사가가 《시마네현고시》 제40호의 게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마네현도서관에 《독도편입》에 관한 고시원본을 찾으니 도서관으로부터 유감스럽게도 그 호수는 《루락되여있다.》는 회답만 받았다고 한다.

실태는 바로 이러하다. 일본이 떠드는 《독도편입》에 관한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유명에 불과하다. 정부의 지령에 따라 만들어진 이 협잡문건은 기껏해야 몇명의 관리들이 열람한것으로 그친것이였다.

일제가 독도의 《시마네현편입》을 조선봉건왕조에 통지한것은 《을사5조약》을 날조한 후 4개월이 지나서였다. 외교권을 일제에게 빼앗긴 조선봉건왕조가 어디에도 항의할수 없다는것을 면밀히 타산한 교활한 술책이였다.

일본이 독도를 강탈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할수 있은 기간은 지난 세기 전반기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한 때뿐이다.

일제의 패망과 함께 일본은 우리 나라의 모든 령토에 대한 식민지통치권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반파쑈세력이였던 련합국측은 사실상 일제의 다른 나라 강점을 불법비법으로 인정하였으며 일제가 강탈하였던 섬들을 해당 나라들에 전부 넘겨줄데 대하여 법적으로 규제하였다.

보다싶이 력사자료들이나 국제법적원칙들, 일제패망후 취해진 국제적조치들 등을 놓고보아도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령토강탈야망이 골수에 찬 날강도의 황당무계한 궤변에 불과하다.

《시마네현고시》 제40호를 도적고양이처럼 슬그머니 조작한 일본이 현시기에 와서 《다께시마의 날》행사라는것을 년례적으로 벌려놓고있는것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것을 적극 여론화하여 앞으로 독도를 무력으로 강탈할수 있는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자는데 그 흉심이 있다.

오늘의 시대는 일본과 같이 령토강탈과 해외침략에 환장한자들이 함부로 날뛸수 없는 시대이다. 일본반동들은 변천된 시대를 똑똑히 보아야 한다.

독도는 반만년의 유구한 우리 민족사와 더불어 한치도 떼여놓을수 없고 그 누구도 감히 넘겨다볼수 없는 조선의 신성한 령토이다.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이 력사적사실은 영원히 달라지지 않을것이다.

일본반동지배층은 실현불가능한 령토강탈야망실현에 발광할것이 아니라 죄많은 과거부터 새롭이 청산하는데 선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리 경 수

중국에서 정월대보름 맞이

중국의 많은 명절들가운데서 정월대보름은 오락색채가 제일 짙은 명절로서 일명 꽃불명절이라고도 한다.

정월대보름밤이 되면 등불구경, 폭죽놀이를 하며 달을 바라보면서 시를 읊는것이 이 나라의 민속전통으로 되고있다.

이날에 사람들은 다양하게 만든 꽃등을 선물로 주고받으며 사자춤과 폭죽놀이, 등불배앗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민속놀이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이름난 화가들과 서예가들의 그림그리기와 붓글쓰기경쟁이 벌어지며 북쪽지방에서는 새알심모양의 떡을 빚어먹고 남쪽지방에서는 경단을 먹는것이 풍습으로 되고있다.

정월대보름에 등불을 내걸고 색전장식을 하는 문화는 중국에서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꽃등에 숨어있는 수수께끼를 풀며 룡모양의 꽃등을 가지고 춤을 추며 굴러다니는 등불배앗기와 같은 유희들이 오늘도 널리 보급되고있다.

올해의 정월대보름명절을 중국인민들은 다채롭게 맞이하였다.

22일 베이징의 국가대극원 소극장에서는 국가대극원합창단의 정월대보름음악회가 진행되였다.

수도와 지방의 거리와 학교, 집집들은 특색있게 제작된 촉등들로 장식되고 떡빚기, 등불만들기, 예술공연들이 벌어졌다.

천진시에서는 대보름전날에 로인들을 위한 연회가 있었으며 심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불전시장을 찾아 휴식의 한때를 보내였다.

정월대보름을 맞으며 각 지방에서 등불놀이와 꽃촉전, 얼음조각전시회 등이 있었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생활기풍 확립

인도네시아정부가 최근 사회적으로 건전한 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있다. 그 한 고리로 정부는 2월에 들어와서만도 인터네트상으로 색정적인 내용물을 류포시키던 477개의 웨브싸이트운영을 중지시켰다고 한다.

예방접종깜빠니야

또고에서 18일 뇌막염예방접종깜빠니야가 개시되였다. 나라의 북부와 중부 등 여러 지역에서 뇌막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시작된 이번 깜빠니야기간 피해지역들에서 환자들에 대한 치료사업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확찐접종이 진행되게 된다. 나라에서는 현재 등록된 뇌막염환자수가 417명에 달하였다 한다.

한편 기네에서도 최근 소아마비예방접종깜빠니야가 진행되였다. 16일 이 나라 정부는 이번 깜빠니야기간에 5살미만 어린이 260여만명이 소아마비확찐을 접종받았다고 밝혔다.

인신매매반대투쟁

말따에서 인신매매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고있다.

나라에서는 지난해부터 인신매매반대투쟁을 국가의 전략적과업으로 틀어쥐고 그러한 범죄행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무적조치들을 취하고있다. 17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히면서 앞으로 인신매매와의 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이나갈 립장을 천명하였다.

어린이보호노력

캄보쟈에서 최근 어린이보호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10일 이 나라 정부는 어린이보호를 위한 3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에 따라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게 된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이란에서 풍력발전소 건설

ㄱ-610301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및 우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